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담대히 살아가자!

남가주 한인교회 부활절 예배 각 교회별로 진행

남가주 한인교회는 코로나19로 연합 부활절 행사가 취소됐지만 개 교회별로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은혜와 부활의 확신, 천국의 소망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각 교회 목회자들은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두려움과 절망, 고독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자고 강조했다.

“부활의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라”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남가주 사랑의교회 노창수 목사는 “사람은 모두 죽음 앞에 서게 된다. 죽음 앞에서는 신분의 귀천, 재산의 많고 적음, 남녀노소의 구분이 없이 모두 사망하게 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의 증거가 되셨다”며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은 종착역이 아니



좌부터 노창수 목사, 신승훈 목사, 민중기 목사, 진유철 목사

라 영원한 나라에서의 첫출발”이라고 전했다.

노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됐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덧입게 됐다”며 “썩지 않을 몸으로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사는 부활을 고대하며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하자”고 했다.

충현선교회 민중기 목사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란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주셨고 부활의 권능으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다”며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되자”고 전했다.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 목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설교하면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대속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자”며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의 삶과 입술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는데 힘쓰자”고 전했다.

“썩는 인생이 아니라 죽는 인생이 부활한다”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나성순복음교회 진유철 목사 “우리의 육체가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다. ‘의복처럼 갈아입을 육체만을 위해서 투자하며 합쓰고 일하지는 않는가?’ 되돌아봐야 한다”며 “성경적 부활을 깨달아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영혼을 위해 투자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자”고 전했다.

진 목사는 또 “오늘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삶 가운데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소망 가운데 승리할 줄로 믿는다”며 “죽음을 두려워하며 썩어져 가는 인생이 아니라 부활을 믿어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자”고 강조했다.

김동욱 기자

기쁜우리교회 생필품 전하며 사랑 나눠



기쁜우리교회가 마련한 코로나19 사랑 나눔 키트. 교회는 75세 이상 교인들을 방문해 위로하고 생필품 가방을 전달했다.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 우리 이웃들에게 전달되길 원해”

기쁜우리교회(담임 김경진 목사)는 지난 11일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75세 이상 교인들을 방문해 위로하고 정성껏 마련한 생필품을 나눴다.

교회 목양위원회, 선교부, 경로사 역부가 주축이 되어 준비한 코로나 19 비상품 및 생필품은 10개 목양지, 200여 명에게 전달됐다.

김경진 목사는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이 우리 이웃들을 향한 사랑으로 전달되길 소원한다”며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삶에 동참함으로 고난 가운데서도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누리는 교회가 성도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생필품 사랑 나눔 전달에 함께 한 송정순 권사는 “나눌 수 있어 감사하다”며 “쌀과 국수, 마스크를 전달하면서 사랑도 함께 전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기쁜우리교회는 매일 코로나 19 사태의 안정과 환자들의 쾌유,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 부흥을 위해 합심 기도를 진행하고 있다.

김동욱 기자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이 동희 원장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nlo Ave, 뉴 서울 호텔 건너편)

그린카피어 리스 & 렌트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크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히 지원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OLYMPIC ZION AUTO
 믿고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SE CERTIFIED
Warranty for All Work Performed
 ■ Brake Service
 ■ Tune-Ups
 ■ A/C Service
 * 월~금 : 8AM~6PM, 토 8AM~4PM * 3210 W, Olympic Blvd., LA, CA 90006
T.(323)730-0112, (323)735-3180

JOYFUL CHRISTIAN COMMUNITY CHURCH
기쁜우리교회
 담임목사 김 경 진
 Senior Pastor Rev. Gyeong Jin Kim
2020 - 2021 학년도 장학생 모집 공고

기쁜우리교회 장학위원회 (Scholarship Committee of Joyful Christian Community Church) 에서 크리스천 학생들의 지속적인 학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제 3기 기쁜우리교회 장학생들을 다음과 같이 선발합니다.

신청 대상

- 본 주소지 혹은 학교가 Southern California 인 정규 4년제 대학(원)생
- Categories: i)General ii)PK & MK iii)Seminary

선발 인원

00명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기쁜우리교회 홈페이지 www.joyfulccc.org를 통해 자세한 신청 안내 받으시고 원서접수는 scholarship2020@joyfulccc.org로 하시거나 아래 주소로 우편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ATTN: Scholarship Committee
 Joyful Christian Community Church
 P.O. Box 270, Glendale, CA 91209

선발 일정

- 신청서 접수기간: 2020년 3월 15일 ~ 4월 26일
- 선발 결과 발표: 2020년 7월 12일 예정
- 장학금 수여식: 2020년 8월 중순 예정 (추후 발표)

“코로나19로 어려운 분들 위해 사용해 달라” 2만 달러 기탁한 성도들

나성순복음교회, 고난주간 특별헌금 구제에 사용할 예정



나성순복음교회

나성순복음교회(담임 진유철 목사) 성도들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과 이웃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자발적으로 모금한 2만 달러를 교회에 기탁했다.

교회는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에서 모아진 헌금에 성도들이 기탁한 2만 달러를 더해 구제비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나성순복음교회는 매년 추수감

사절과 성탄절 헌금을 지역 사회 구제를 위해 사용했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 특별히 신분 등의 문제로 정부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이들에게 고난주간 헌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진유철牧사는 “온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모두가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 고난이 닥치면 자칫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 어려운데 진실한 그리스도인

이라면 세상과 구별된 믿음의 모습을 증거 할 책임도 있다”며 “그것은 주 안에서 나보다 힘든 이웃을 향해 진실한 사랑과 희생을 증거 하는 데 있다”고 전했다.

한편 나성순복음교회 성도들은 자가 대기 명령(‘Stay at Home’ Order) 기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의 안정과 종식을 위해 릴레이 금식기도를 이어가고 있다.

김동욱 기자

기쁜우리교회 장학생 선발, 1천 달러에서 3천 달러까지 수여

남가주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대상, 유학생도 지원 가능

기쁜우리교회(담임 김경진 목사) 장학위원회는 크리스천 학생들의 지속적인 학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2020년도 기쁜우리교회 제3기 장학생을 모집한다.

본래 주소지 혹은 학교 소재지가 남가주인 정규 4년제 대학 학부생이나 대학원생이면 신청할 수 있고 장학금은 1000~3000달러다.

장학금 신청은 △성적 장학생 △선교 장학생 △선교사 및 목사 자녀 장학생 등 세 부분으로 나뉘며, 신청자는 한 카테고리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자신의 재정적 필요성을 상세하게 소개하는 요약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자는 유학생이어도 가능하며 I-20 관련 문서를 제출하면 된다.

장학생 지원 자격은 세례교인으로 GPA가 2.7 이상인 학생으로 공식 성적표와 함께 재학 중인 대학 교수나 출석 중인 교회 목사로부터 추천서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선교장학생은 신학대학 재학생이 지원할 수 있고 제출서류는 같다. 선교사 및 목사 자녀 장학생은 부모가 풀타임 선교사나 목회자임을 증명해야 한다.

신청서는 기쁜우리교회 웹사이트 www.joyfulccc.org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오는 4월 26일(주일)까지며 구비서류를 이메일 scholarship2020@joyfulccc.org로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Attn: Scholarship Committee, Joyful Christian Community Church, P.O. Box 270, Glendale, CA 91209)

선발된 장학생 명단은 각자 이메일로 통보되며 7월 12일 주간에 교회 웹사이트에도 게시된다. 장학금 수여식은 8월 중순 기쁜우리교회 예배시간에 진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메일(scholarship2020@joyfulccc.org)로 문의할 수 있다.

김동욱 기자

오픈뱅크 임직원, 코로나19 극복위해 한인사회에 10만달러 기부

오픈뱅크(회장 민 김)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운 한인사회 이웃들을 돕는다.

오픈뱅크(회장 민 김)는 지난 13일, 이사진과 임직원들의 기부금으로 마련된 10만 달러를 기초 생활까지 위협받는 한인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인사회 비영리단체에 전달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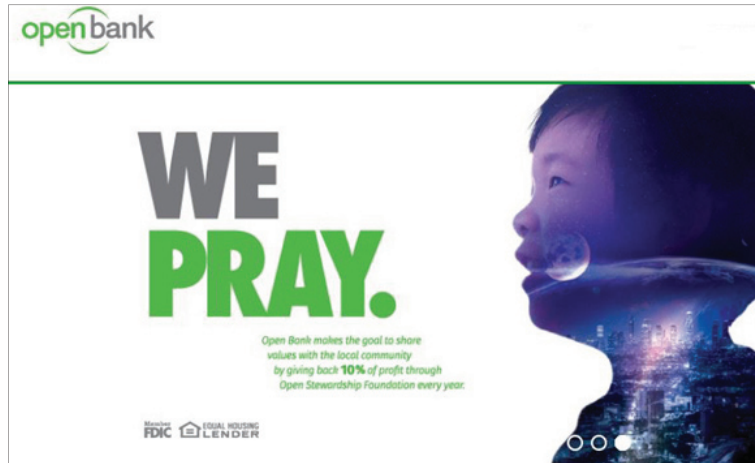
직원들은 기부금 조성을 위해 휴가(1일 이상)를 자발적으로 은행에 반납했고 은행측은 이를 금액으로 환산해서 기부금으로 만들었다. 또한 직원들은 은행에서 제공하는 점심 식사 때마다 1달러씩 기부금을 모아 왔는데, 지난 2년동안 모았던 기부금도 이번엔 이웃돕기에 사용하기로 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오픈뱅크 이사진들과 오픈정지기재단이 기부

마련했다.

이 기부금은 한인가정상담소(KFAM)와 LA 한인회에 각각 5만 달러씩 전달된다. 한인가정상담소는 이 기부금을 가정폭력피해가족과 싱글맘 가족 중에서 현재 직장을 잃고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에게 지원하게 된다. LA 한인회도 정부 혜택을 받지 못하고 기초 생활조차도 힘든 저소득층에게 물품 위주로 지원하게 된다.

로라 전 한인회장은 “코로나 19로 어려운 시기에, 한인들을 먼저 생각하는 오픈뱅크의 배려와 온정에 커뮤니티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며 “직원 한분 한분이 휴가를 반납하여 펀드를 만들고 이것을 또 다시 어려운 한인을 위해 기부하시는 것은 이전 보다 더 큰 결단과 신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오픈뱅크 가족 여러분의 이웃사랑



오픈뱅크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다양한 나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온정은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는데 큰 위로와 용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인가정상담소 카니 정 조 소장은 “오픈뱅크는 한인가정상담소를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있는데 이번

에 코로나 19 사태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한인가정상담소 지원 가족들을 위해 도움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많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삶의 희망이 꺾이지 않도록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신 오

픈뱅크 임직원들의 마음과 나눔 실천으로 모아진 큰 희망을 한인가정상담소 지원 가정들에게 꼭 전하겠다”고 밝혔다.

오픈뱅크의 민 김 회장은 “직원들이 직접 의견을 내고 휴가를 기부해 가장 어려운 한인들을 도울 수 있게 된 것에 정말 직원들이 자랑스럽고 감사하다”며 “또한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동참해주신 이사님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전했다.

한편 오픈뱅크는 얼마 전 코로나 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은 한인 커뮤니티 요식업계를 위해 100만달러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총 333업체에 각 3000달러씩 무상 지원한다고 밝혀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김동욱 기자

캘리포니아주 의료보험 의무화 및 미가입 벌금에 대비하세요!

기독교의료상조회
CHRISTIAN MUTUAL MED-AID
Since 1996
Operated by Logos Missions, Inc.

*미국 내 의사, 병원 제한 없고, 한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발생한 의료비 지원

문의: 이사라 213.318.0020 | www.cmmllogos.org

- 크리스천들의 의료비 나눔 사역
- 완벽한 한국어 서비스 안내
- 낮은 본인 부담금 (골드플랜스 1년 \$500)

코엠 커뮤니티 센터
KOAM Christian Community Outreach Center

저렴한 비용으로 도와드립니다.

- 비영리단체등록
- 특허
- 비영리 단체 세금 보고
- 주 교육국(인준) 상담해 드림

David Lee (213)422-8916, (818)523-1119

미국 정착의 지름길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미국정착을 도와드립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임상우를 만나십시오

오직 **이민법**만을 취급합니다
투자이민 상담환영

- ▶ 투자비자 및 이민업무
- ▶ 취업비자 및 이민업무
- ▶ 지상사 주재원 비자 및 이민업무
- ▶ 종교비자 및 이민업무
- ▶ 학생비자
- ▶ 가족초청 이민업무
- ▶ 체류기간 연장
- ▶ 시민권 취득
- ▶ 추방 재판
- ▶ 기타 전반 이민업무

임상우 이민법 변호사
J.D. (법학박사) & LL.M. (전문 법학박사/Post Doctorate Degree)
Golden Gate Law School 졸업
미국 이민법 변호사협회 정회원
원광법원 출두 자격소지
Member of AZ Bar & AILA
이민법변호사 경력 2003년 10월 부터 현재까지
다들카페 미사모 이민상담 변호사 2007년 3월부터 2013년 8월
미주 중앙 라디오 방송 이민칼럼니스트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
미주복음방송, 미주 중앙 TV, 라디오서울, 라디오 코리아, TVK
중앙일보 웹사이트, YTN 뉴스 라디오 등 이민강연/상담 경력

임상우
이민전문로펌

213.251.5554

www.davidlimlaw.com

Law Offices of David S. Lim | 3435 Wilshire Blvd., Suite 2550, Los Angeles, CA 90010 / Fax 213.251.8451

토랜스제일장로교회 남가주 50명 미만 교회에 1천 달러 지원

“서로를 돌아보고 이웃 교회를 돌아보는 기간이 되면 좋겠다”



토랜스제일장로교회

코로나19 위기에도 남가주 한인 교계에는 서로를 돌아보는 온정이 이어지고 있다.

토랜스제일장로교회(담임 고창현 목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재정적으로 어려운 교회를 돕기로 하고, 지정 헌금을 제외한 한 달 동안의 헌금을 모두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교회는 남가주 이민교회 가운데 장년 교인 수 50명 미만인 교회에 1천 달러를 지원하게 되며, 1차로 3월 29일 헌금을 통해 13 교회에 지원을 마쳤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호소하는 시기지만 이웃 교회를 돕기 위한 교인들의 성원은 더욱 커지고 있다. 2차로 전달될 4월 5일 헌금은 첫 주보다 많아져 20여 교회를 지원할 예정이며, 금주 부활절 헌금도 모두 지역 교회를 돕는 데 사용할 계획이다.

고창현 목사는 “연방정부 지원책도 있지만 지역 교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또 어려운 시기에 집을 함께 나누자는 마음으로 결정했다”며 “교단이 다르고 지역과 교회 이름이 다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 서로를 돕고자 시작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고 목사는 또 “비록 많지 않은 액수임에도 불구하고 지원받는 교회 목사님들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혼자 아니라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있음에 감격해하신다”며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라고 하지만 서로를 돌아보고 이웃 교회를 돌아보는 기간이 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동욱 기자

“코로나19, 그리스도 사랑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

코이노니아선교회 독거노인 방문해 생필품 전달

코이노니아선교회(대표 박종희 목사)가 코로나19로 외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독거노인들을 찾아가 위로했다.

코이노니아선교회는 지난 7일, 선교회가 섬기는 사우스베이 지역 독거노인 520명 가운데 350명을 찾아 생필품과 간식을 전달했다. 마트 방문이나 간단한 물품 구입도 어려운 때에 코이노니아 선교회의 방문은 독거노인들에게 큰 위로와 도움이 됐다.

박종희 목사는 “코로나19로 노인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다. 우리가 눈을 열어 주변을 살펴보면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베풀어야 할 대상들이 너무 많다”며 “야고보서 2장 15-16절(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덤계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말씀처럼 모두가 어려운 이때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라고 전했다.

박 목사는 이어 “물비누와 로션, 간식 등 작은 선물이지만 불안과 허탈에 빠진 노인들에게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코이노니아선교회는 4월부터 격주로 사우스베이지역 520명의 독거노인들에게 생필품과 간식을 제공할 예정이다. 독거노인 섬김에 동참하길 원하는 단체나 개인은 전화 (310) 508-2733 또는 이메일 koinoniamission@live.co.kr로 문의할 수 있다.

한편 코이노니아선교회는 2009년부터 양로병원, 양로원, 노인케어센터, 저소득 노인 아파트 등을 방문해 예배와 찬양, 특별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노인과 환자들을 섬겨오고 있다.

김동욱 기자



사우스베이지역 독거노인들을 찾아 생필품을 전달하는 코이노니아선교회(맨 왼쪽 대표 박종희 목사)

‘금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의 복음통일선교도서

빛은 그를 외면하지 않았다

금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

Righteous Outlaw

책의 추천자들:

오대영목사(예수전도단), 주선애교수(장신대 명예교수), 이용희교수(예수대), 송정영목사(복음전대 공동대표), 권준목사(유빌라이주대표), 신정민목사(종교인도 대변인), 유관지목사(종교포럼대표), 김민식목사(KCC공동대표)

박상원 목사 책의 판권자

* 앞의 책은 아예 번역권도 주물라실 수 있습니다. \$20/권당 + \$5 우송료

지금까지 3만 5천부가 판매된 ‘금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한/영)과 수록 ‘빛은 그를 외면하지 않았다’는 북한 간부 출신의 자전적 스토리와 지화성도들의 순교종언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기적같은 여정이, 우리에겐 복음통일의 완수라는 분명한 메시지의 울림이다.

* 체크오더명: GBMW 모든 기부금은 세금공제 혜택 받는 세금영수증을 발행해 드립니다.

기독교독자 GBMW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T.(425)775-7477 gbmwusa@gideonbrothers.org www.gideonbrothers.org

• 이번에는 무슨 차로 할까? • 요즘 스포츠에 있는 차가 무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용자가 될까? • 안녕 하세요? 18년의 경험을 기반으로 고객님들의 고민 해결을 한 방에 날려 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현역히 다 돌려받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8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현역 푸엔테힐스 현대 Puente Hills Hyundai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앞서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헤어칼라 전문점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칼라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헤어 칼라

\$40 up **\$20** up

* 단, 칼라만 하시면 \$40^{up}

매직 스테이트

\$120 up

프로페셔널- 웰라 제품만 사용한다

광고에 사용한 모델의 헤어 칼라는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칼라한 실제 사진들입니다.

WELLA PROFESSIONALS SEBASTIAN

앞서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y stylist mystylist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해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분에만함. * 헤어 칼라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편리한 위치-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 영업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 까지 10:00 AM ~ 8:00 PM

Tel: 213-739-1022



선교부흥을 회복하라 #153

“터키, 가지엔텨에서 발견한 미국인 순교자 묘소”

지난 13년간의 이슬람권 선교사역을 회상했다. 터키의 남부 가지엔텨를 방문해서 거리를 다니며 전도를 할 때였다. 한 허름한 병원을 들어가서 뒤뜰을 걷다가 뜰 한구석에 몇 개의 묘비들이 있는 것을 보았다. '1862년 죽었다'라고 쓰여 있었다. 어떻게? 왜? 아무런 설명이 없다. 26세의 청년이다.

미국 프린스턴 태생이고, 선교사로 터키를 왔다. 그 당시 터키는 오스만 제국의 끝자락에 있었다. 무슬림들의 기독교인 탄압이 고조로 행해질 때다. 역사를 보면 무슬림 정권은 기한을 정하고 기독교인들에게 조상 대대로 살던 땅을 떠나라 통고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난민이 되어 세계 각국으로 퍼졌다. 그리고 그들은 역사에서 사라졌다. 그러나 소수의 기독교인들은 믿음도 지키며 조상의 땅도 지키고 싶었다. 고난과 박해를 무릅쓰고 그들은 그 땅을 지켰다. 그런 그들을 두고 떠날 수 없어 이 묘비의 주인들이 그들과 함께 했다. 총으로 죽었는지 매 맞아 죽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은 죽는 순간을 같이했다. 영원한 천국 재회를 약속하며 믿음 가운데 장엄하게 찬송을 부르며 그들은 기쁨으로 죽었을 것이다. 난 알 수 있었다. 마치 사도행전의 스테판처럼 그들의 환한 미소를 묘비에서 보았기 때문이다.

19세기에 미국의 청년들은 세계선교의 꿈을 꾸며 그렇게 터키로 아프리카로 남미로 아시아로 그리고 한국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선교의 디아스포라가 되었다. 그래서 난 지금 이 미국이 잠시 휘청거릴지라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못하실 것이라 믿는다. 이유 없이 눈물이 흘렀고 큰 기쁨이 내면에서 솟아났다.

황혼 무렵 가지엔텨 도시의 한 북관에 우뚝 솟아 있는 칼레(옛날 높은 성벽터를 일컬음)에 올랐다. 사방에 수없이 보이는 모스크에서 때마침 아잔이 울렸다. 그들이 기도하는 시간이었다. 그러나 칼레에 있는 어느 누구도 아잔에 맞춰 기도하는 사람을 볼 수 없었다. 젊은이들은 무어가 좋은지 자기들끼리 키득키득할 뿐이다. 혼자 벤치에 앉아 있는 한 노인도 아잔 소리에 미동도 없었다. 한 구석에 홀로 앉아 있는 청



이상훈 목사
주비전교회 담임

년에게 다가갔다. 가볍게 인사를 하고 한국인이라고 하는 말에 그는 호기심 섞인 눈으로 내게 다가왔다. 띄엄띄엄 손짓, 눈짓으로 대화하며 가지고 간 스마트폰에 담겨 있는 가족사진들을 소개하며 한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다가 그 형제가 묻고 싶었던 것을 마침내 물었다. 한국인이 왜 좋은 관광지가 많은데 이런 시골 마을에 들어왔냐고, 자기가 좋은 그에게 나를 소개했다. 아! 그 시간엔 주님이 기다리신 시간. 필자는 그 시간을 위하여 수개월간 기도하고 선교비를 마련하며 준비하였었다. “형제여!”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해 왔다고 했다. 그는 예수를 알고 있었다. 예수는 훌륭한 선지자 중 한 분이고 자기들도 예수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 했다. 그는 자기는 알라를 믿는다고 했다. 나는 그에게 예수를 한번 알아보고 공부해 보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그는 한국인이 자기 동네에 온 정성을 생각했는지 탐탁지 않아하는 눈치였으나 어떻게 공부할 수 있느냐 물었다. 나는 그에게 터키어 신약성경을 건넸다. 이 책을 읽어 보라고, 반드시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을 얻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신약을 권했다.

나는 그와 그렇게 대화하다가 내가 형제를 위해 기도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느냐 물었다. 흔쾌히 허락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렸다. “사랑의 하나님! 이 영혼에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알라에게 묶여 있지만 그의 손에 쥐어준 이 성경으로 인해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옵소서.” 그 영혼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실 것임을 믿었다.

♡ 섬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행복 만들기 (11) 실패

실패를 활용하라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매년 10월 13일, 핀란드 헬싱키에선 특별한 행사가 열립니다. 그 행사의 이름은 ‘실패의 날’ 행사입니다. 학생, 교수, 기업인이 모여 각자의 실패 사례들을 공유하고, 실패의 이유들을 분석하고 참석자들의 조언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에서 독특한 의미는 ‘실패에 대한 독특한 정의’입니다. 그들이 정의하는 실패는 ‘성공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행사의 의미와 목적은 그들의 실패를 성공으로 만들려 하는 것입니다.

이 날은 2011년에 시작되었습니다. 핀란드의 한 창업동아리가 만든 날입니다. 실패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실패로부터 성공의 지혜를 배우는 날입니다. 이 ‘실패의 날’에는 평범한 대학생에서부터 기업인, 연예인 그리고 정치인들이 한 자리에서 자신들의 실패담을 나눕니다. 이 실패의 날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핀란드의 대표적인 기업이요 세계적인 핸드폰 기업이었던 노키아가 자신들의 실패를 솔직하게 소개해 주목을 끌었습니다. 이 노키아의 고백은 핀란드인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핀란드가 자랑하는 세계적인 핸드폰 회사였던 노키아의 실패는 핀란드 사회에 큰 충격이었는데 그 실패를 공개적으로 나눈 것은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핀란드 사람들에게 실패의 긍정적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 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이 ‘실패의 날’ 행사는 점점 성장했습니다. 현재 30여 개국이 참여하는 국제 행사로 발전하였습니다. 행사의 규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행사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실패자들이 재기를 꿈꾸며 성공의 기회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들은 ‘실패’를 사용하여 성공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실패를 사용하여 성공을 만드는 것은 탁월한 관점입니다. 실패는 불완전한 인류가 공유하는 아픔입니다. 그런데 그 실패의 쓴잔이 성공의 기회로 된다면 그 실패의 쓴잔은 보약과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실패를 성공의 도구로 보는 것은 탁월하고 멋진 관점입니다. 실패를 사용해야 합니다. 성공을 위해 사용되는 실패는 상처나 아픔이 아닙니다. 실패를 사용하세요!

일본 실패학을 창시한 하타무라 요타로 도쿄대 교수의 “**찌먹는 실패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하타무라 요타로는 실패 활용법 혹은 실패 사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그는 축적해온 실패학의 방대한 연구 성과 중에서 적용 가능한 것들을 거칠게 정리하였습니다.

첫째 실패의 충격에서 벗어나라! 실패했을 때에 가장 먼저 만나는 위기는 실패의 충격입니다. 실패를 활용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실패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타무라 요타로 교수는 ‘실패를 인정하되 둔감해지라’고 권합니다. 실패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에게 너무 심하게 몰아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는 실패했다면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것이 실패의 충격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둘째 실패의 원인들을 파악하라! 하타무라 요타로 교수는 실패학 전문가답게 실패의 문제를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근거를 제시합니다. 실패의 이유를 냉철하게 분석하여 원인들을 찾아야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실패를 낳은 6대 원인들(미지, 무지, 부주의, 순서 무시, 오판)에 비추어 봐야 합니다. 실패 정보를 올바르게 분석하여 실패의 이유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실패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실패를 창조적으로 바꿔라! 저자는 실패를 창조적으로 전환하라고 합니다. 실패를 보는 눈을 바꾸고 실패의 가치와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의 실패의 가치를 인정하기 전까지 실패는 상처와 부담입니다. 그러나 실패의 가치를 깨달으면 실패는 삶의 지혜가 되고, 실패가 인생의 실력이요, 인생의 자량이요, 인생의 계급장이 됩니다.

넷째 교훈을 현실에서 적용하라! 실패를 통해 얻은 경험과 지혜를 실제적 삶에서 활용해야 합니다. 실패가 스승이지만 실천되지 않는 교훈은 의미가 없습니다. ‘실패’라는 스승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그 교훈을 실제적 삶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실패의 교훈이 실제로 적용되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요 유능한 삶입니다.

실패를 사용해야 합니다. 실패는 보물입니다. 활용되고 사용되지 않는 실패는 가치가 없습니다. 분석되지 않고, 정리되지 않고 사용되지 않는 실패는 인생의 가치와 상처가 됩니다. 그러나 정리되고 소화되어 사용되는 실패는 인생의 보약입니다. 실패가 인생의 실력입니다.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효,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이사장 : 존 킴 고문변호사 : 정찬웅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후원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사랑과 섬김으로 세상을 밝히는 World Share가
바로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당신의 **일부**를 나누면
한 아이의 인생 **전부**가 바뀝니다.

World share USA는

국제 구호 NGO 단체입니다. 월드쉐어 USA는 UN과 함께합니다. 월드쉐어 USA는 질병과 기아에서 허덕이는 고아와 절대 빈곤 아동들을 사랑으로 후원합니다.

한 달에
30불, 35불 소액
회원 가입으로
생명을 살리는
축복을 누리세요!



World Share USA
3123 W 8th St, #206, LA CA 90005

▪ 후원 문의: 강태광 목사 T.(323)578-7933, (213)318-5227

“코로나19 위기는 가정회복의 기회입니다”

[인터뷰]2020년 청교도 400주년 연합 기도회 준비위원장 강순영 목사

미국 청교도 이주 400주년을 기념해 미국의 영적 부흥과 청교도 신앙회복을 위해 지난 1월 27일 북가주를 시작으로 3월 17일까지 애리조나, 텍사스, 앨라배마, 조지아, 버지니아, 메릴랜드, 델라웨어, 필라델피아, 뉴저지, 뉴욕, 오하이오, 미시간, 시카고 등 미주 30개 주요 도시를 방문하고 돌아온 2020년 청교도 400주년 연합 기도회 준비위원장 강순영 목사를 만났다.

강순영 목사는 “코로나19로 매일 가정 모임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됐다”며 “성경 일독, 가정예배, 가정 기도회 및 은혜 나눔 등을 통해 이 기간 기독교 가정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코로나 19 사태를 지켜보며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간이 되어야 한다”며 “기도와 말씀을 통한 회개와 각성 운동, 가정 회복과 나눔 운동이 일어나 기독교 부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하는 일문일답.

-청교도 400주년을 기념한 2020년 미주 지역 한인교회 연합 기도회 준비 상황은 어떤가?

“1620년 청교도가 미국 땅에 도착한 지 400년이 되는 올해, 청교도의 신앙과 정신을 계승하고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되찾고자 미전역 30개 주요 도시 한인교계 지도자들을 만나 연합 기도회 취지를 설명하고 준비 모임을 가졌다.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는 대로 당초 50개 도시 방문 계획을 따라 오레곤, 워싱턴주 등 서북미 지역 주요 한인교회들을 방문할 예



강순영 목사와 청교도 400주년 기념 및 남가주 다민족 기도대회 사무총장 강태광 목사

정이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미국의 영적 부흥과 회복을 위해 연합기도회를 11월 1일 은혜한인교회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연합 기도회가 연기됐는데, 지금 준비하는 사역은 무엇인가?

“크리스천 가정 회복운동을 준비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교회 모임은 어려워졌지만 가정 모임이 매일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됐다. 청교도 신앙의 핵심은 가정에서 시작하는 것이기에 청교도 신앙 회복에서 가정 회복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간은 청교도 신앙 회

복에서 필수적인 가정 모임과 예배가 회복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시간이다.”

-크리스천 가정 회복 운동을 위한 수칙을 제안한다면?

“첫째 전 가족이 동참하는 가정예배를 주 3회 이상드린다. 둘째는 가족 간 기도 제목을 나눔으로 가족이 기도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셋째는 사랑과 이해와 관용을 바탕으로 한 가족 간의 대화의 날을 주 1회 이상 갖도록 한다. 넷째는 가족 간의 용서와 화해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것이다.

가족이 다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고 각자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서로

의 삶을 나누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중심삼은 가정으로 거듭나게 된다. 또한 사랑과 이해를 바탕으로 가족 간에 대화를 나누며 용서와 화해가 넘치는 가정을 세우게 된다. 코로나 사태가 끝나기 전에 기독교 가정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가정 예배와 지역교회 연합 기도회 지원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2020년 연합기도회 운동의 일환으로 매달 가정예배에 드리는 주제를 전달할 예정이다. 그리고 청교도 400주년을 기념해 제작한 “청교도 신앙 회복과 부흥”이란 책을 추가로 인쇄해 미주 전역의 한인교회협의회에 발송할 예정이다. 한인들이

미국의 영적 주인의식을 가지고 신앙의 성숙을 통해 제2의 청교도로 준비되길 소망한다.”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다. 크리스천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하고 겸비하게 하시는 것 같다. 모일 수 없는 가운데서도 각 지역에서 목회자들을 비롯해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모임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세상적인 욕망으로 침몰에 빠진 교회와 성도들이 각성해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부흥 운동으로 연결되도록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초대교회와 같은 나눔이 일어나야 한다. 이미 여러 교회에서 코로나 사태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교회들을 돕기 위한 선행이 일어나고 있다. 이웃들에게 생필품을 돕는 교회도 늘어나고 있다. 교회가 더 활발하게 나눔 운동에 동참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세상에 널리 드러내야 한다.

또한 크리스천으로서 재난과 고난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 감옥에 갇혔던 바울은 로마 황제 경호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들어간 존 번연은 천로역정을 집필했다. 마틴 루터는 교황과 황제로부터 이단자로 낙인찍힌 상황에서 신약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다. 코로나 위기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고 부흥을 일으키실 것임을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

김동욱 기자

뉴욕 이민교회 대표적 원로 장영춘 목사 소천



뉴욕 이민교회 초기부터 뉴욕교계에 큰 리더십을 발휘해 왔던 장영춘 목사가 10일 소천했다. ©퀸즈장로교회 홈페이지 캡처

뉴욕 이민교회를 대표하는 원로목사였던 장영춘 목사(퀸즈장로교회 원로)가 10일 오후 4시50

분 플러싱 부스 메모리얼병원에서 소천했다.故 장영춘 목사는 최근 플러싱요양원에서 지내고 있

1974년 퀸즈장로교회 개척 후 미동부 핵심 한인교회로 성장시킨 인물

었으며 지난 6일 코로나19 감염 의심 증상으로 인해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고인의 유가족은 장미는 사모와 1남2녀가 있다.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장례 순서가 밀려있어 고인의 장례절차는 2주 후에 밟을 예정이다.

故 장영춘 목사는 1957년 9월 혜성교회 전도사를 시작으로 긴 목회 여정을 출발했다. 1961년에는 신용산교회 강도사로 부임했고, 1964년 10월 총회신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1966년 5월12일 목사안수를 받는다.

미국에서의 첫발은 1968년 1월 유학이었다. 1970년 센트럴 신학교에서 신학석사 과정을 마치고 1972년 8월 뉴저지장로교회를 설립하면서 이민교회 목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퀸즈장로교회는 1974년 2월 설립했고 초대 담임으로 38년을 섬기며 뉴욕지역을 비롯해 미동부 지역을 대표하는 한인교회로 성장시켰다. 1987년에는 동부개혁신학교를 설립하면서 미주에서의 수

많은 후학들을 양성했고, 현재 미주 한인예수교장로회(KAPC)에 소속된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그의 제자들이다.

뉴욕 이민교회 초기 한인교회들이 많지 않을 때 뉴욕지역에서 주요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뉴욕교계도 성실히 섬겼다.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장은 1977년 역임했다. 이 밖에도 1992년 미주크리스천신문 발행인, 2003년 한인기독교 이민100주년 세계선교대회(하와이) 대표회장, 2005년 뉴욕미국교회협의회(CCCNY) 한국대표, 2005년 대뉴욕 빌리그래함 전도대회 대표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교계를 섬겨왔다.

김대원 기자

2020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종준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 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교회(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석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경호 박사 71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 이상훈 박사, 이사장 : 조종관 박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du.edu, admissions@aeu.edu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t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WWW.GGBTS.EDU / KEB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Universit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T.(626)857-2200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봄의 침묵에서 인간의 침묵으로(1)



박 동 식 교수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조직신학

1. 낯선 봄

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쓰고 나니 이 “봄”이라는 단어가 왜 이리 낯설까요? “봄”이라고 발음해 봅니다. 여전히 낯섭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발음해 봅니다. 분명히 “봄”이 맞는데, 왜 이리 “봄”만 낯설까요? 사진을 검색합니다. “봄”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봄”이 낯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봄”에 대해 생각하다 보니 신대원 입학 논술 시험이 생각나네요. 그때 주제가 “환경 문제”에 관한 것이어서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Silent Spring)을 언급하면서 써 내려간 기억이 납니다.

다시 발음해 봅니다. “봄입니다.”네 “봄”입니다. 그런데 이 “봄”이 고요합니다. 아니 고요하다 못해 적막하네요. 어느 노래 가사인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는 모순 표현처럼, 봄임에도 적막을 넘어 스산하기까지 합니다. 카슨은 환경 오염으로 더 이상 새들이 노래하지 않거나 울지 않는 모습을 “봄”이 침묵한다 했지요.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 19로 인해 “인간”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봄의 침묵이 무서운가요, 아니면 인간의 침묵이 무서운가요? 봄의 침묵이 슬픈가요, 인간의 침묵이 슬픈가요, 라는 별 쓸데없는 생각을 하다 다시금 봄 길을 걸어가 봅니다.

2. 다시 돌아오는 봄/자연

산책하며 동네 언덕에 올라서니 하늘이 청명합니다. 평소 이렇게 깨끗한 하늘을 본 적이 별로 없는데 인간이 침묵한 이후로 잘 보이지 않던 LA 마천루가 눈에 들어옵니다. 평소에는 먼지층이 굵은 핵대처럼 드리우고 있어서 누리끼리한 하늘이었는데 LA 하늘이 이렇게 푸르고 맑은 것은 사람이 다니지 않고 차가 다니지 않아서일 겁니다. 동네 골프

장에도 사람이 없으니 토끼들이 서로 장난을 치고 하늘을 날던 오리들이 내려앉았습니다. 서로 골프 회동을 하나 봅니다. 누가 이길까요?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도시에 사슴이나 산짐승들이 나타난다는 소식이 빈번합니다. 인간이 침묵하니 자연이 제 모습을 드러내고 제 색깔을 내는 것 같습니다.

산책하다 보면 앞 정원이 잘 관리된 집이 있는가 하면 그냥 둔 집도 있습니다. 잘 정리된 정원은 깔끔해서 보기에 좋을지는 몰라도 좀 방치된(?) 정원에는 각종 풀 등이 자랍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그 원인이 어떠하든 사라진다면, 자연도 사라질까요? 그리고 반대로 자연이 사라지면 우리 인간도 사라질까요? 답은 자명한 것 같습니다. 인간은 사라져도 자연은 그대로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연이 사라지면 우리 인간도 사라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약한 인생임에도 그동안 너무 묵에 힘주고 살아온 우리 인간들이 아니었던가요? 겸손해야죠. 그러라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의 시간을 주신지도 모르겠습니다.

King's Canyon에 있는 Moro 바위를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하도 높아서 중간에 멈춰 섰습니다. 고소 공포증 때문이었습니. 아내와 아이들이 정상에 다녀오는 동안 중간에 멈춰서 아래 산들을 보고 있는데 새들이 날더군요. 이 높은 산에서 나는 새들이 위대해 보였습니다. 고소공포증도 없나 봅니다. 저 자신은 물론이거나 우리 인간이 한없이 약해 보였습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바다가 그렇게 넓은데 인간이 물놀이 하는 곳을 가만히 보면 불과 몇 미터 되지도 않습니다. 우주가 이렇게도 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는 점보다도 작습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겠죠. 그리고 돌 하나도 함부로 차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돌에도 생(生)이 있을 테고 어쩌면 우리가 산 햇수가 범접하지 못한 생을 산 존재들일 수 있을 테니까요.

인간이 침묵하고 인간이 멈추니 자연이 돌아오네요. 근대 초기 철학자인 토머스 홉스는 자연 상태를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의 상태로 봤지만, 암만해도 자연 상태는 그런 투쟁의 장이 아닌 조화와 공존의 상태가 맞을 것 같습니다. 타락 전 에덴동산처럼 말이죠. 아이들이 흙을 좋아하는 것은 어쩌면 흙에서 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사람이 늙어서 늙음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은 흙으로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

니다. 그래서 인간을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간다’(전3:20) 하지 싶습니다.

3. 그 꽃 함부로 꺾지 마라!

언젠가 누군가를 기다리며 앉아 있는데 꽃향기가 나더군요. 꽃이 있어서 꽃향기를 맡는 게 아니라 문득 꽃향기가 나서 주위를 둘러보니 꽃이 있음을 알게 된 적이 있습니다. 향기는 주위를 둘러보게 하더군요. 둘러보니 그 꽃이 예쁘더군요. 꽃은 자기 예쁜 거 알까요? 꽃이 예쁜 건 색깔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 색깔이 시선을 사로잡지요.

어릴 때 가장 좋아했던 꽃은 개나리였습니다. 온 동네와 온 산을 뒤덮은 노란색이 보기 좋았나 봅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누군가가 좋아 짝사랑에 눈뜨고 그 사랑으로 인해 가슴앓이할 때 즈음엔 하얀 목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장 화려하게 짧게 폼다 가장 쓸쓸히 저버리는 목련만큼 사랑의 기쁨과 행복 그와 동시에 사랑의 슬픔과 눈물을 알려주는 꽃도 없는 듯했습니다. 장미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 이는 비싸서 그저 가난을 알게 해 준 꽃으로 기억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장미가 무슨 잘못이 있었습니까?

봄바람 타며 이제 온 세상 수많은 꽃이 피어나는데 피어난 꽃 한송이 한 송이마다 의미 있고 아름답습니다. 걷다가 길옆에 피어 있는 꽃들이 눈에 들어오면 허리 숙여 들여다보고 냄새도 맡아 봅시다. 대신 그 꽃 함부로 꺾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시인 함민복은 “모든 경계에는 꽃이 핀다” 했는데 어쩌면 ‘꽃에는 경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맞는 듯합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어찌 그렇게도 자연스럽게 옆집 담장을 넘어서고, 인도 차도 구분 없이 넘어서고, 군사분계선을 넘어서고, 국경을 넘어서고, 강아지 눈 속으로도, 아기의 마음속으로도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모든 꽃에는 경계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꽃을 악용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요즘 꽃을 내세워 sns에 친구 신청하는 각종 이단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꽃으로 가린다고 가려지는가요. 그 꽃 시들면 민낯이 드러날 테니 이단들이여, 꽃을 내세워 신청하지 말고 당당히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고 신청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진리 아닌 것에 그렇게 인생을 걸고 숨어 살지 말고 진리를 믿어 떳떳한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핸드폰을 보는 눈앞으로 무엇인가 떨어집니다. 새 한 마리 날아 왔은 줄 알았습니다. 곧 날아가겠지 하는데 그다음 동작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핸드폰에서 눈을 떼어보니 새가 아니라 낙엽입니다. 그리고 보니 떨어진 낙엽은 스스로 떠오를 수 있는 힘과 생명이 없군요. 만발하던 꽃이, 예쁘게 피었던 꽃이, 시들어 떨어집니다.

그런데 꽃은 왜 떨어질까요? 꽃이 떨어지는 것은 꽃대를 붙잡은 꽃의 손에 힘이 빠지기 때문일 겁니다. 꽃대가 꽃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꽃이 꽃대를 잡고 있는 것일 겁니다. 그렇다면 비바람 몹시 몰아치던 날에도 떨어지지 않은 것은 그렇게도 떨어지지 않으려고 온 힘으로 꽃대를 붙잡았기 때문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냥 붙어 있는 줄만 알았는데 말이죠. 그저 붙어 있다면 조화이겠군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겠지요.

정호승 시인도 꽃에서 인생을 배운다고 했습니다. “원래 꽃들도 천동 번개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꽃들은 오히려 천동 번개가 어떻게 치는지 알고 싶어한다. 나무들도 아무런 시련 없이 고요히 자라는 것이 아니다. 비바람이 몰아칠 때 온몸이 뒤흔들리는 나무의 고통을 보라. 나무도 그런 고통과 시련을 통해 더 튼튼하고 아름다운 나무로 자란다. 한여름의 폭풍을 통해 꽃과 나무와 새들도 삶의 인물을 배우는 것이다.”1)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 바람을 잡아 보려 하지만 잡히지 않네요. 흔들리는 나뭇가지들처럼, 우리도 흔들리는 하루를 버티며 견디며 살아가고 있음을 새삼 깨닫습니다. 부디 흔들리더라도 쓰러지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4. 자연은 아름다워!

둥글었던 달이 기울어집니다. 아니 이지러집니다. 달은 그냥 있는데 우리 눈도 똑같은데 어찌 된 일일까요? 그렇다면 달과 우리 사이에 무엇인가 일어났겠지요. 처음 달을 본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달이 제 살을 깎아 먹더니 이내 사라지고 또 어느새 사라진 달이 나타나서 커지더니 둥근 달이 되는 모습을 처음 본 아담과 하와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간밤에 내린 이슬 위에 아침 햇살 내려앉으니 모락모락 사랑의 아지랑이 피어오릅니다. 지지귀는 새 소리 허공에 흩뿌려져 사라지지만 아직 내 마음속에 씨앗 하나로 남아 있으니 누가 인생만 아름답고 소중하다 하는가요? 세상에 그 어떤 형

태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아름답고 소중한 자기의 삶을 살며 더불어 사랑하며 더불어 배웁니다.

그러니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고, 세상에 ‘나’ 아닌 ‘타자’로부터 배워봅시다. 그 타자들은 나의 존재를 위해 존재하는 도구적 존재들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할 관계적 존재들이지요. 밤새 내린 이슬은 생명을 약속케 하는데 우리는 밤새 무얼 했나요? 밤새 내린 이슬만큼도 못한 이기적 존재 아닌가요? 이슬이 말을 못 해 그렇지 우리 인간들에게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럼에도 이슬은 밤새 말없이 내리지 않던가요.

‘나무가 바위가 된 숲/자연’(petrified forest)을 둘러보는 가운데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아들 입에서 “Nature is beautiful!”(자연은 아름다워!)이라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자기가 보기에도 뭔가 아름답긴 아름다웠나 봅니다. 이 표현은 인간이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자연에 대한 가장 높은 경의의 표현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름다다는 말은 언어의 끝에 터져 나오는 탄식의 표현이니까요. 언어로 더 이상 표현이 안 될 때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름다움에 대한 복종일 것입니다. 탄식은 놀라움과 복종의 의미를 지니지요.

바닷가 근처 생태 공원을 찾은 적이 있습니다. 강물이 바다와 만나는 지점이더군요. 새들이 공중에서 날갯짓을 하지 않고 멈춰 있다가 표적을 발견하고는 직하합니다. 그리고 언뜻 보기에도 좋은 카메라를 가진 이들이 독 기술에 앉아 무언가를 찍고 있더군요. 물어보니 skimmers라는 새를 찍는다고 하더군요. 무슨 새인지 궁금해하는 순간 갑자기 새 한 마리가 날아오니 누군가가 “skimmers”라고 외치더군요. 카메라 셔터 터치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기자들이 연예인들 사진 찍을 때 나는 소리 같았습니다. 검은색과 흰색이 조화된 새인데 날아오더니 수면 위를 입을 벌리고 스치듯 날아갑니다. 부리로 고기를 쓸어 담으려 하는가 봅니다.

순간을 담기 위해 사진사들은 기다립니다. 한 마리 물고기를 잡기 위해 새들도 기다립니다. 기다리다 목표물을 발견하면 순식간에 셔터를 누르거나 순식간에 직하합니다. 자연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움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 세계는 아름답습니다. 그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자연이 다하는 날까지 그 아름다움을 고백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계속)

담임목사 청빙

중서부 미시간주 칼라마주에 위치한 칼라마주 한인교회에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따라, 귀한 복음 전파를 사모할 뿐만 아니라, 힘든 이민자의 삶을 살고있는 교인들이, 그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과 인내로 인도해주실 목자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1982년에 창립한 칼라마주 한인교회는 북미개혁신교단에 속해있으며, 약 60여명의 교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나누고 있는, 작지만 큰 교회입니다.

<http://kzoochurch.org/kzoochurch/index.php>

<https://www.facebook.com/kzoochurch/>

우리가 살고있는 이 곳 칼라마주는, 미국 중서부 미시간주의 서남쪽에 위치한 중간 규모의 도시로서, 인근 유동인구까지 합치면 약 33만 명이 살고있는 곳입니다. 서쪽으로는 시카고가 약 두시간 거리에 있고, 동쪽으로는 디트로이트가 역시 비슷한 시간대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대도시로의 접근성도 꽤 괜찮은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 도시(Calvin Seminary가 소재)로 알려진 그랜드 래피즈가 한 시간 거리에 있고, 깨끗하고 조용한 소도시 특성으로 인해, 자녀들의 교육적인 면에서 안전하고 적합한 환경일 뿐만 아니라, 사계절이 뚜렷한 날씨와 자연 친화적인 환경, 그리고 미시간호수가 지척에 있어 계절에 상관없이 바닷가의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원자격

- 정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신 분으로서, 개혁신교단에 소속되어 있거나, 가입이 가능한 분을 모십니다.
- 목사안수를 받으셨고, 부목사나 전도사 경험이 있는 분을 모십니다. 담임 목회 경험이 있으신 분을 선호하지만, 없으셔도 무방합니다.
-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로도 기본적인 의사 소통이 가능하시면 좋겠습니다.
- 현재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목회하시는 데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을 모십니다.

제출서류

- 이력서, 신학대학원 졸업증명서, 목사 안수증명서사본
- 목회 비전 및 계획을 포함한 자기 및 동반 가족 소개서
- 추천서 2장 (목회자 추천서 1부 필수, 추천인의 연락처 기재요망)
- 최근 설교 2편 (MP3 file 혹은 Youtube link)

제출 기한 및 제출처

- 2020년 5월 31일까지 접수된 서류들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생길 시 연장 가능합니다.
- 추천서를 제외한 모든 서류는 아래의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koreanchurchkalamazoo@gmail.com
- 추천서는 추천하시는 분이 개별적으로 위의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고, 추천서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부탁드립니다.

기타

- 4 bedroom 사택 (전기와 개스 포함)을 교회에서 제공해 드립니다.
- 접수된 서류는 다시 돌려드리지 못함을 양해바라며, 접수된 지원서는 지원자 이메일을 통해 확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원 관련 및 저희가 광고에 미처 실지 못한 사항에 대한 질문이나, 저희 교회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위의 이메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칼라마주한인교회
Korean Christian Reformed Church of Kalamazoo

존 파이퍼 “하나님께서 코로나19 허용하신 이유”



존 파이퍼 목사.

“코로나19 하나님 손 안에 있다... 더 지혜로운 목적이 있어”

존 파이퍼(John Piper) 목사가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허락하신 이유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파이퍼 목사는 최근 팟캐스트 ‘파이퍼 목사에게 물어보세요’ 코너에서 ‘파타복음 4장 24절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는 말씀을 언급하며 “죽음이나 코로나19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코로나19보다 강하시다”라고 강조했다.

파이퍼 목사는 “예수님은 그 어떤 질병보다 훨씬 강력하시다. 사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바람, 비, 눈, 번개, 식물, 풀, 메뚜기, 불, 개구리, 벌레, 고래, 새, 모든 것들에 다 명령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다. 그분은 이 모든 것들을 향해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명하시고 그들은 말씀대로 한다.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파이퍼 목사는 “그러면 ‘코로나19는 왜 있는 것인가요? 하나님, 예수님, 이를 가져가 주시면 안 될까요? 가능하지 않아요’라는 요청에 이르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손가락으로 이 코로나19 사태를 끝낼 수 있다”면서 “그렇게 하시지 않는 이유는 더 지혜로운 목적이 있기 때문”

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지혜로우신 분이다. 그분은 항상 최선의 결과를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정확하게 아신다는 의미이다. 이를 우리는 지혜라고 부른다. 여러분이 항상 어떤 것이 최선인지 안다면,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혜에 있어서 완벽하신 분이다. 그분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아신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언제 해야 할지도 아신다”고 말했다.

파이퍼 목사는 이어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허용하시는 또 다른 이유는 이 땅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을 일깨우시기 위한 것이다. 사람들이 더 이상 자신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자신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들을 보여 주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 죽음이 나 코로나19의 두려움에 대한 해독제였다. 코로나19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는 매우 놀랍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한, 또는 그 어떤 죽음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다. 그분은 죽음을 심판이 아닌 당신과 함께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출입문으로 바꾸셨다”고 했다.

강혜진 기자

동성혼 케익 거부한 제빵사, 이번엔 성전환 케익 거부했다며 고발당해



제빵사 잭 필립스. ©Alliance Defending Freedom 유튜브 영상 캡처

자유방어연맹 “악의적 고발 기각돼야” 맞소송 진행

미국 콜로라도 주의 제빵사 잭 필립스가 ‘성전환(gender-transition)’ 기념 케이크 제작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두번째 소송을 당해 최근 다시 법정에 섰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9일 보도했다.

기독교인인 잭 필립스는 2012년에, 동성 커플로부터 결혼 케이크 제작을 부탁 받았으나,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거부하자 그는 콜로라도 시민평등위원회(Colorado Civil Rights Commission)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수년간의 소송 끝에 그는 2018년 미국 대법원으로부터 7대 2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엔 동성 결혼이 아닌 ‘성전환지향주의(transgenderism)’를 기념하는 케이크’ 제작을 거절했다며 트랜스젠더 운동가이자 변호사인 어텀 스카르디나(Autumn Scadina)가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스카르디나는 필립스가 콜로라도주의 차별금지법과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10만달러 이상의 손해배상 및 벌금, 변호사비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자유방어연맹(ADF: The Alliance Defending Freedom)은 소송 기각을 주장하면서 맞소송을 제기했다.

자유방어연맹은 “(어떤 이는) 콜로라도 주가 잭을 고발하여 사업의 40%를 잃은 걸

로는 흡족해 하지 않았다. 그가 대법원에까지 가는 내내 자유를 지키려 했던 것으로도 흡족해 하지 않았다. 잭과 그의 가족이 수년간 괴롭힘과 심지어 죽음의 위협을 견뎌왔다는 것으로도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단체의 웹사이트를 통해 밝혔다.

이어 자유방어연맹은 “어떤 이는 마스터피스(Masterpiece) 케이크 가게가 문을 닫고 잭 필립스가 파산을 한다면 만족스럽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평범한 미국인 사업가 잭이 막대한 대가를 치르기를 원하고 있다.그 이유는, 그가 자신의 신앙을 따라 살길 원한다는 데에 있다. 이젠 그를 내버려 두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케이크상 대 콜로라도 시민평등위원회’ 소송에 대한 미국 대법원의 판결은 오늘날에 종교의 자유에 관한 중요한 판례 중 하나로 여겨진다. 대다수의 판사들은 콜로라도 위원회의 중립성 부족에 무게를 두었고 결국 필립스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판결 직후인 2018년 3월 콜로라도 주정부는 잭 필립스가 ‘성전환 기념 케이크’ 제작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곧바로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자유방어연맹도 잭 필립스 대신 맞소송을 진행해 1년 만에 양측이 소를 모두 취하하는 조건으로 사건이 마무리된 바 있다.

2020년 들어 이번에는 트랜스젠더 운동가까지 잭 필립스를 상대로 고발을 이어가면서 기독교 제빵사의 신앙 양심적 행동에 대한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

김진 기자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영혼의심 내적치유 영성집회 오후 7:30(월, 수, 금)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 (213) 674-7966, (213) 245-6616

주일예배
교육부 예배
평신도 리더십훈련 매주 수
금요 말씀과 삶 공부
토요일침례

오전 11:00
오전 11:00
오전 7:00
오후 7:00
오전 9:00

씨니킴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4009 Wilshire Blvd. #100B, LA, CA 90010
T. (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내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20(월, 금)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오전 6:20(토)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종교지도임(수) 오후 7:30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민2세를 책임지며, 이민가정을 치유하며, 선교영광을 순증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Olympic & Edden 코너)
T. (213) 386-2233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 - 토)

장태원 담임목사

LA세계선교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
3407 W. 6th St. #412 (6가와 카탈리나), LA, CA 90020
T. (213) 909-6473

Rain down 주일예배 오후 3:30
Heart of David 금요일예배 오후 8:00
Lighter 전도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최순환 담임목사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1340 E 6th St, #419, LA, CA 90021
T. (310) 905-2228 / newchurchdtda.com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합세회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chc.com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 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후 6:00 (토)
3부예배 오후 2:00 유초등부 오후 10: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0:30

강진웅 담임목사

갈보리민음교회
그리스도와 성도와 이웃과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주일 수요일예배
새벽예배 (토) 오전 6:0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아나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가와 Rampart Blvd 교차로 북동쪽에 위치)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유초등부 오후 10:30
4부예배 오후 1:30(영성예배)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9:00 성인 EMO예배 오후 12:30
2부예배 오전 11:00 한아침년례예배 오후 12:30
천안예배 주일오후 2:3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박현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치유와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os Angeles, CA 90019
T. (323) 634-9191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6:00(토)
중고등부 EM 오전 11:00

차성구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 되어 십자가 복을 전하는 생명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주일 1부예배 (분당)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분당)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2:30
천안예배 (분당) 저녁 8:30 새벽기도회(월, 금) 오전 5:30
리셋예배(열린예배) (소매점) 오전 11:00

정정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302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 (213) 387-1700 C. (213) 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라티노 오후 6:3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지역 : 유아원 지역, 후드 지역, 장악 지역, 십자가 지역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 소, 천, 초 정신의 흐름, 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 예배 오전 10:30
2부 예배 오후 1:30
성경 공부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신도모임가 만민부 지역 유망한 한인교회

김경렬 담임목사

산타모니카한인교회
영혼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 502-9999 / www.smkc.us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O(대,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 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오전 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 321-4433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이순환 담임목사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애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는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LA동부, 라스베가스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 591-6500 sunhand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이희철 담임목사

갯스윌연합교회
여호와를 찾을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0:30 (토요일) 오전 6:0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로 세움 받아 함께 살아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 674-3016, cell. (562) 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50 유초등부/유치부 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예배 오전 10:5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신용환 담임목사

나성한미교회
부르심에 응답하고 보냄심에 반응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 (월, 금)
EM(Holy Wave) 오전 10:00 오전 6:30 (토)

우영화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 590-3722 www.eastsarang.org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조용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35 수요일출강회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 622-2324, F.(909) 622-1480 / inlandchurch.org



안 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람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 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951) 966-9191



이훈준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EM예배 오전 11:00 EM성경공부 오후 7:00 (금)
종보기도모임 오전 10:30 금요일아침기도회(마침)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909) 595-3110 hnsa@hnsa.org



송재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종교동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고승희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수요기도회 오후 7:30 오전 6:30(토)
중국어 성경공부 오후 7:30(화) 汉语查经班: 周二晚上七点半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5135 Edison ave, suite 13, Chino, CA 91710
T.(714)461-6412



조준민 담임목사

Sunday Service: 2 PM

PASTOR SUNGWON 'SJ' JAHNG

LA Open Door Community Church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986-8496 / www.laopendoor.church



PASTOR SUNGWON 'SJ' JAHNG

밸리, 글렌데일, 파사데나

주일 1부 오전 7:00 JCCC Academy
주일 2부 오전 9:00 오전 10:15, 오후 12:40 (교육관)
주일 3부 오전 11:00 EM 오전 11:15 (교육관)
(Blended Service)
사랑부 오전 8:45 (교육관)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동아리 내 길에 빛이 나이다

333 E.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T.(818)662-0400 www.joyfulchurch.org



김경진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금)
종교동부 오전 11:00 Awana 오후 8:00(금)
유년부 오전 11:00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금)
EM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베다니한인교회

문턱없는 교회 변화받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방수민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금요성경집회 오후 7:30 한여 청년부 주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오명찬 담임목사

MP예배 333 S. Garfield Ave., Monterey Park, CA 91754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5월 3부 예배 오전 10:00 금요일출강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 토 오전 6:00
158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5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 토 오전 6:00
T. (818) 365-6567 T. (626) 857-5200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최 혁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종교동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여청년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이정현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 오전 9:30 사랑의 빛 반 주일오전 11:30
주일 3부 오전 11:30 금요일성경집회 오후 7:45
젊은이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www.lolmc.org



윤대혁 담임목사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곽덕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4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549-9191 / F.(818)549-9199 / choonghyun.org



민종기 담임목사

사우스베이, 토렌스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종고등부 예배 오전 8:40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이호민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유종고등부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종교동부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유치부 오전 11: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00

가디나 장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340 W. Gardena Blvd., Gardena, CA 90247
T.(310)217-9191 www.gpclove.com



신태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 Bible Study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9:45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2부예배(EM) 오후 11:00

나성금란교회

기본으로 돌아가는 교회 (제 2:5)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이석부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고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장로예배 오후 7:30
EM 1부 9:30 / 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310) 719-2244 / dkpc.org



권영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서보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강신권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일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후 1:00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길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김경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30 금요일장로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EM예배 오전 11:00 오전 5:40 (토)

성화장로교회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찬가하며, 함께 걷는 믿음-사랑-소망 공동체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T. (310) 515-1191 www.sunghwachurch.org



이동진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EM예배 오전 10:45 금요일성경대강회 금 오후 7:20

주님세운교회

처음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박성규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일중보기도회 오후 7:30

주비전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자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 90247
T. (714) 296-6783 www.sbhsvision.org



이상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 530-4040 / F.(310) 530-8400 / cornerstonetm.com



이종웅 담임목사

주일1부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00
EM예배 1부 오전 9:30/2부 오전 11:00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고창현 담임목사

프랜시스 찬 목사

“강력한 회개의 시기…하나님만 의존해야”



프랜시스 찬 목사. ©PULSE

최근 ‘리더 체크인’ 방송에 출연 팬데믹 상황에 대해 언급

베스트셀러 작가 겸 성경교사인 프랜시스 찬(Francis Chan)목사가 코로나19 대유행에 대한 다른 교계 지도자들의 견해를 소개하면서 “지금은 회개하기 좋은 시간이며, 하나님은 아마 교회가 다시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기 원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10일 보도했다.

찬목사는 12명의 기독교 지도자들과 음악가, 강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10시간 동안 진행된 ‘리더 체크인(Leader Check In)’이라는 프로그램에 참여, “전염병 대유행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은 지금이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얼마나 강력한 시기’인가를 말해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찬목사는 “하나님은 지금 생전 처음 보는 무언가를 하고 계신다. 마치 새로운 계절로 향하는 느낌”이라면서 “교회 전체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찬목사는 방송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는 시간이 성장의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지금은 성경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말할 것을 기억해야 할 때

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찬목사는 야고보서 4장 10절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주님 앞에 낮추라”고 계속 힘주어 강조했다.

찬목사는 기술이 발달해도 막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이 바이러스는 우리가 얼마나 준비되지 않았는지도 보여주고 있다”면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의존해야 한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이 전능하시다”고 말했다.

찬목사는 방송에서 최근 외도로 인해 아내와 이혼하기로 결심한 한 친구의 사례를 들었다. 찬목사는 “이런 불확실한 시기에 그러한 결정은 어리석은 것이었다”면서 “이것이 종말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찬목사는 자신의 근황과 관련, “매달 선교여행을 떠나지만 이번 자가 격리 기간은 하나님과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에서 6천명이 출석하는 대형교회를 이끌었던 그는 사임 후 집필 및 선교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리더 체크인’은 전세계 수천 개 교회와 단체들이 제후해 출범했다. 방송에 출연하는 모든 연사들은 상처받는 세계를 위해 자발적으로 시간을 내어 설교를 전하고 있다고 크리스천포스트는 설명했다.

강연숙 기자

美 법무장관 “코로나 정책, 교회만 단속 말고 균등하게 시행해야”



미국 오클라호마의 빅토리 처치가 드라이브 인 예배를 드리는 모습 ©Paul Daugherty 페이스북

윌리엄 바 미국 법무장관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시행한다는 이유로 종교 단체를 단속하는 관리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2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바 법무장관의 대변인 케리 쿠펜(Kerry Kupec)은 부활절을 앞둔 토요일,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

그는 “바 법무장관은 최근 예배에 대한 주 정부들의 규제에 대해 검토했다. 이 비상 사태 기간,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은 적절하다. 하지만 종교단체만을 선별해 단속하지 말고 균등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다음 주에 있을 법무부의 조치를 기대하라고 했다.

CP에 따르면 미국에서 많은 교회들이 부활절 주일,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을 위반하지 않도록 드라이브 인 예배를 집행하는 분위기다.

앞서 로라 켈리 캔자스 주지사는 종교 모임을 10명 이하로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공화당 의원들에 의해 이 명령은 취소됐다. 지난 8일 공화당 상원 입법조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찬성 5, 반대 2로 집회 제한 규정을 없애는 결정을 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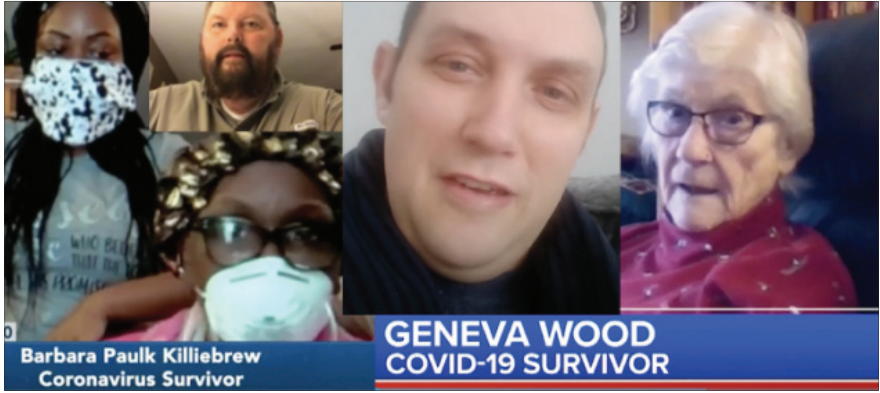
지난달 말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대책으로 예배나 모임을 가지는 교회나 유대 회당을 영구적으로 폐쇄하겠다고 발언해 복음주의자들의 반발을 샀다.

이에 대해 미국 국제 종교 자유위원회(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의장

이자 기독교 보수 단체 가족연구위원회(Family Research Council) 회장인 토니 퍼킨스(Tony Perkins)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드블라지오 시장의 명령에 대해 비판했다.

퍼킨스 회장은 “교회와 유대 회당을 영구적으로 폐쇄하겠다는 드 블라지오 시장의 자극적이고 위협적인 명령은 철회되거나 수정되어야 한다”며 “이같은 유형의 종교적 적대감은 공공 안전을 넘어선 동기를 드러낸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코로나19 생존자들의 간증...
“하나님의 도우심 경험”



코로나19 생존자들의 모습. 왼쪽부터 바바라 킬리브루, 클레이 벤들리, 리 맥클랜드, 제네바 우드. ©유튜브 영상 캡처

코로나19가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기 전, 2월 워싱턴 커크랜드의 라이프케어 센터(Life Care Center)가 바이러스에 노출되면서 약 35명이 사망했다. 이 병원 에 입원 중이던 제네바 우드 씨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살려주셨다고 고백했다.

우드 씨는 뇌졸중으로 입원했다가 회복 중이었다. 그런데 그녀의 퇴원을 하루 앞두고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시설이 봉쇄됐고, 그녀는 며칠 동안 고열에 시달렸다고.

그녀는 CBN과의 인터뷰에서 “증상이 있기 전까지 내가 바이러스를 갖고 있었다는 사실도 몰랐다. 그 전에는 전혀 증상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후 우드 씨는 생사의 갈림길에 있게 됐고, 의사들은 가족들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일렀다. 우드 씨는 격려된 상태였지만, 바이러스와 싸우는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꼈다고 고백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다. 그분의 손이 내 몸 위에 있었고, 그분의 임재를 느꼈다. 그리고 일어났을 때에도 이 손길을 느낄 수 있었고, 난 다시 잠들었다. 밤새도록 그분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고, 그분이 나와 함께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그분이 아니었다면, 난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분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난 혼자 아니었다”고 말했다.

또 매일 자신과 성경을 공유한 ‘한 명의 특별한’ 의사를 떠올리며 “그에게 ‘시편 23편’이라고 말한 것이 전부였지만, 그는 매일 아침 내게 (시편 23편을) 읽어주었다”고 했다.

우드 씨는 입원한 지 19일 만에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고 집으로 퇴원했다. 그녀의 가족들은 그녀의 회복은 ‘기적’이라고 고백에 말할 수 없다고 했다.

강혜진 기자

릭 워렌 “역사상 첫 ‘모일 수 없는 부활절’
예수 더 붙들자”



부활절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릭 워렌 목사. ©새들백교회

가까운 이들에게 다가갈 것과
하나님께 기도할 것 권면

미국 새들백교회(Saddleback Church) 릭 워렌 목사가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더욱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자”고 권면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13일 보도했다.

릭 워렌 목사는 부활주일 설교에서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수백만의 지역 교회들이 부활절을 맞아 모일 수 없게 됐다. 이러한 일은 2000년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오리엔티카운티 레지스터와의 인터뷰에서는 “꿈을 꿀 시간”(Time to Dream)이라는 제목의 부활절 설교를 준비했다. 교회의 창립 40주년을 기념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내용의 설교를 준비했으나, 코로나19의 지속적 확산에 따라 ‘삶이 무너지л 때 부활 경험하기’라는 제목의 새로운 설교로 바꾸었다”고 배경을 전했다.

워렌 목사는 “지금과 같은 일은 이전에 없었다. 9/11 테러, 허리케인 카트리나 등도 경험했지만, 이것(코로나19)은 다르다”며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도 많은 신앙인들이 코로나의 영향을 받고 있고, 불안해하기도 한다”고 했다.

그는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당신이 말씀하신 자신에 대한 선포가 참된 진리라는 사실을 증명했다. 부활은 역사상 많은 이들이 하나님이라고 선포해 온 예수님의 정체성을 증명했다.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했지만,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부활을 통해 이를 증명하셨다. 이것이 23억 명의 기독교인들이 부활주일을 기념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워렌 목사는 “부활의 이야기에서, 예수

님은 삶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 주셨다. 사람이 위기를 겪을 때 불안함과 허탈감을 느끼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은 도전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말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을 보고 무너진 이들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다시 만났을 때는 비결한 모습에서 용감해졌다. 두려워하던 모습에서 담대해졌다. 우울하던 이들이 기뻐하게 되고, 절망하며 소망이 없던 이들이 기뻐하게 되었다. 힘이 없던 자들이 힘을 얻게 되었고, 전 세계에 그리스도를 쉬지 않고 증거하는 자들이 되었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일어난 변화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의 삶을 변화시켰고, 수백만, 수십억 인구를 바꾸셨다”고 증거했다.

그렇면서 “많은 이들이 코로나19를 두려워하고 고통받고 있다. 지금 여러분이 고통과 두려움 속에 있다면, 예수님이 하신 2가지를 해야 한다. 먼저는 가까운 이들에게 다가가라. 예수님께서 배신과 고난을 당하시기 전 가장 마지막으로 하신 일은 제자들과 친밀한 시간을 갖는 것이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라. 여러분의 의지로는 충분하지 않다. 부정적인 생각보다 긍정적인 생각이 더 낫지만, 이는 여러분이 다룰 수 있는 일인 경우에 그러하다. 여러분의 한계를 넘어선 일에 대해선 어떻게 하겠는가? 우리는 스스로를 의지할 수 없고, 구주가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일하셔야 한다. 이를 우리는 구원이라고 부른다”고 덧붙였다.

강혜진 기자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KM청년예배 오후 2:00

오전 8:00
오전 9:45
수요예배 오후 8:00
세백예배(월-토) 오후 5:30

김우준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짐으로 오병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gcc.org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O.C, 엘바인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1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김철민 장로

주일예배 오후 12:20
금요찬양예배 오후 8시:30
세백예배(월-금) 오전 5:30

민승기 담임목사

갈보리새생명교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T. (714)615-9191, 995-5351 john_m9191@yahoo.com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현대교회청년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 오후 7:30
정애민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세백기도회 5:30(월-금)/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6:00
대학청년예배 오전 11:00

중, 고등부예배 오전 11:00
유, 초등부예배 오전 11:00
설기 예배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오병익 담임목사

남가주 베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562) 524-2037 bethelchurchca@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EC)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백정우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저녁 8:00
세백예배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교회학교 주일 오전 11:00

이 일 담임목사

남가주순복음교회
복수 생으로 생명을 얻은 새생명교회

10871 Western Ave., Stanton, CA 90680
T. (714) 952-0191 / www.socalfgc.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0:30

세백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성령로 세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령침례 오후 8:00
한국학교 주일 1:30

교육부 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청년부

왕상윤 담임목사

NEXT 사랑의교회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

11 Musick Honor Farm Rd, Irvine, CA 92618
T. (949) 829-0010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세백기도회 주일 오전 6:00

최순길 담임목사

LA 임마누엘교회

5621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0
T. (714)743-0141

1부예배(EM) 주일 9:00am
2부예배(KM) 주일 11:00am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금요찬양예배 8:00pm
(매월 두번째 금)
세백예배 화-금 5:30am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9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 1부 예배 : 오전 9:45
주일 2부 예배 : 오전 11:00
유년부예배 : 주일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 주일 오전 11:00

목요저녁예배 : 오후 7시
세백기도 : 오전 6:00(화-금)
셀모임 : 매달 둘째 및 넷째 금요일
세백기도회 화-토 오전 5:30

안상희 담임목사

남가주늘사랑교회
Everlove Baptist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1461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92833
T. (714) 525-0191 / www.ebcsocal.com

주일예배 오전 11:30
금요예배 오후 8:00
세백예배 오전 5:30(화-금)

김일권 담임목사

다 감사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988-3321, (562)896-1665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세백기도회 화-토 오전 5:30

안성복 담임목사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30
어린이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후 7:00(주)
중보기도 오전 9:00(목)

제자성서 오전 9:30(금)
한아빠 오전 9:15, 오전 11:30
세백기도 오전 6:00(화-토)

림학춘 담임목사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8:45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00

세백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이 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 영어 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일본어 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1부 예배 : 오전 9:30
2부 예배 : 오전 11:30
English Ministry : 오전 11:30
주일학교/중고등부 : 오전 11:30

청년부 : 오후 2:00
Hispanic Service : 오전 9:30
금요 기도회 : 오후 8:00
세백 기도회 : 오전 5:30 (월-금)

정기정 담임목사

샘물교회
풍성하신 하나님을 누리는 공동체

11909 Courser Ave, La Mirada, CA 9063
T. (714)749-7770 www.saemool.church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중고등부 오전 9:15, 11:30
한아빠 오전 11:3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박신용 담임목사

얼바인은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2:00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어)
세백 예배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청년부 수요성령기도회 오후 7:30

엘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기쁨의 공동체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매월 마지막 금요일)
청년부예배 오후 2:00
세백기도회 오전 5:30 (월-토)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1부예배 오전 07:30
2부예배 오전 09:2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2:00

세백예배 평일 오전 05:30
토요일 오전 06:0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은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영어) 오전 10:00
3부예배 오후 11:45
토요세백기도회 오전 6:00

신원규 담임목사

좋은마음교회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92886
T. (714)646-9259

주일 예배 오후 1:30
세백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 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문/사/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2020년 봄학기 신입생 | 편입생모집

참,(진리의길) 읽,(학문의 길) 씹,(십자가의 길)

개강일자: 4월 2일

*COVID-19으로인하여 개강일자가 연기되었습니다

신학대학교

신학과(B.A) | 126학점

신학대학원

■ M.Div 교역학 석사과정 | 96학점
■ D.Min 목회학 박사과정 (NYTS)

본교 지원시 특전

- 1) 개척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대학(BA)과정이나 교역학 석사(M.Div) 과정 지원자는 첫 등록학기에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 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입학상담 : 213-272-6031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276 S. Rampart Blvd. Los Angeles, CA 90057 | TEL: 213-272-6031



PRINCETON BIBLE UNIVERSITY IN AMERICA

프린스턴바이블유니버시티

**CNA | RN 시험준비
영어반 학생모집**

CNA, RN, 채혈사 임시를 위한 영어 강의가 개설됩니다. 미국 공립학교에서 36년간 영어교사를 하신 헨리김 선생님이 지도합니다.



헨리김 선생

CNA, RN 준비반
월, 화, 수 PM 2:00-4:00

채혈사 준비반
월, 화, 수 PM 4:30-6:30

상담문의전화 818-624-9106
213-272-6031

프린스턴바이블유니버시티

2867 1/2 7th St. Los Angeles, CA 90057

2020 LA, California
**목회자 및 사모
복음과 성령 컨퍼런스**
Holy Spirit Conference

2020년 3월 9일-10일(월, 화)

9일(월) 저녁 7pm

10일(화) 오전 10am-4pm

장소: 나눔과 섬김교회

276 S. Rampart Bl. Los Angeles



강력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의 말씀과 성령님의
능력이 폭포수처럼 흐르는
성령의 기름부으심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회장: 이명희목사)

회 장: 이명희목사

수석부회장: 박정희목사

부 회 장: 조은혜목사, 윤에스터목사

송정순목사, 김사라목사, 노정혜목사

서사라목사, 박예경목사, 조미나목사

총 무: 조현숙목사

주관: 남가주한인여성목사회

후원: 개척장로회한미연합총회

문의 562)896-3212 (에스더유전도사)

562)201-4184 (이명희목사)

714)222-1794 (박정희목사)

강사: 이상목 목사

목회자성령컨퍼런스 주강사

(한국, 미국, 캐나다, 남아, 동남아 등)

목회자능력지도회 주강사

목회자 및 사모 영과영성, 주강사

팬실메니아 Erie 장로교회 담임

KAPC소속 (남부노회 부노회장)

프린스턴 바이블 유니버시티 2020년 봄학기 입학생 및 편입생 모집

프린스턴 바이블 유니버시티(PRINCETON BIBLE UNIVERSITY)에서 입학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받아 그의 사역자로 헌신하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학사과정

(B.Th/B.A)

126학점

석사과정

(M.Div/M.A)

96학점

박사과정

(D.Min/Ph.D)

48학점

3월16일 개강

등록상담전화

310-678-6836

213-249-6924



PRINCETON BIBLE UNIVERSITY IN AMERICA

프린스턴바이블유니버시티

2867 1/2 7th St. Los Angeles, CA 90057 | TEL: 310-678-6836

부활과 희망

요한복음 11장 25절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그리고 감동적인 현상 등에 의하여 움직입니다. 날씨가 추우면 몸도 마음도 움츠러지고, 날씨가 맑으면 표정도 맑아지고, 비가 오면 왠지 우울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꽃의 계절 봄에는 사람들의 마음이 야외로 나가고 싶어 합니다.

꽃을 보는 사람들의 표현은 ‘아! 좋다.’ ‘아름답다.’ 라고 표현하고 표정은 해맑은 웃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움직임에는 희망이 있어야 하고 희망을 줘야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봄을 가리켜 생명의 계절이라 합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라 그렇습니다. 겨울의 들녘은 인기척이 없지만 봄기운이 완연하면 많은 사람들은 들로 산으로 움직임을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냉이를 캐고, 쑥을 뜯고, 나물류를 캐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고난주간인 어둠을 터널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상에서 온갖 조소와 멸시 그리고 조롱을 받으신 시간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죽은 자가운데 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머무르시지 않고 승리하셨음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 찬양의 이유는 바로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란 말은 인간을 힘 있게 하는 매력적인 단어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쇠퇴하거나



송재호 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폐지한 것이 다시 성하게 된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생각하면 희망이 생기는 듯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부활을 생각하면 왠지 힘이 다시 솟구치는 듯합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이란 단어는 영어로 세 가지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Revival’입니다. 이는 소생, 회복, 부흥의 뜻이 있습니다. 특히 르네상스 즉 문예부흥을 말합니다. 암울했던 중세는 문화의 암흑기라 합니다. 철저한 통제로 이루어진 로마제국의 멸망과 함께 문

화의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인문주의, 인쇄술, 예술 특히 미술 분야의 확산을 통해서 자유표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The Resurrection’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변화의 의미를 이야기 합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요한복음 5장 24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요한복음 14장 1절)는 말씀으로 인간에게 무한한 평안과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남기셨습니다.

세 번째 ‘Easter’입니다. 이는 부활절,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는 축제일을 말합니다. 인간의 삶속에는 절기가 있습니다. 절기는 인간의 마음을 모아 즐거움을 창출해 내는 귀중한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부활의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곳 남가주에도 봄의 기운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도 어둠과 겨울의 계절을 보내고 계십니까? 혹시 아직도 할 수 없다, 포기하고 싶다 고민하고 계십니까? 부활의 희망을 묵상해 보십시오. 오늘도 우리에게는 부활 그리고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불행 속에 담긴 부활의 영광

십자가는 불행의 십자가입니다. 그런 까닭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인해 고뇌하셨습니다(막 14:34).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갈 3:13하). 십자가는 멸시와 천대의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임심은 불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불행 속에 담긴 부활의 영광을 보셨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시선입니다. 통찰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고 있는 것에서 무엇을 발견해 내느냐에 있습니다. 불행이라는 사건 속에서 보석을 찾아내느냐가 중요합니다. 불행을 잘 극복한 사람들은 불행을 보는 눈이 다릅니다. 불행을 잘 극복한 사람들은 불행 속에 담긴 보석을 볼 줄 알았습니다. 짧은 시 한 편 소개하고 싶습니다. 신달자 시인의 《불행》이라는 시입니다.

불행/신달자

던지지 마라
박살난다
그것도 잘 주무르면
옥이 되리니

우리는 불행이 찾아오면 던져 버리고 싶습니다. 박살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불행을 함부로 “던지지 마라”고 부탁합니다. “박살내지 마라”고 권면합니다. 불행도 잘 주무르면 옥(玉)이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불행도 잘 주무르면 옥이 된다는 표현은 불행을 경험한 사람이 쓸 수 있는 시어(詩語)입니다. 불행 속에서 담긴 옥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쓸 수 있는 시입니다. 불행을 잘 주물러서 옥을 만들 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쓸 수 있는 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불행을 마다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어 던지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라는 불행을 박살내지 않으셨습니다. 아름다운 삶은 불행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불행을 이겨낸 삶입니다. 불행을 극복한 삶입니다. 불행을 행복으로 만들어 낸 삶입니다. 세상은 불행을 맞보지 않은 사람을 부러워할지 모릅니다. 불행이 없다는 것은 삶의 골짜기 없었다는 것입니다. 삶의 골짜기가 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불행이 없다는 것은 위기와 시련과 역경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불행이 없다는 것은 고난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불행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불행을 찬양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저도 불행이 싫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역설적입니다. 불행 속에 행복이 담겨 있습니다. 인생의 깊은 맛은 불행을 통해 경험하게 됩니다. 깊은 언어, 아름다운 음악, 불후의 명화(名畵), 울림을 주는 시(詩)는 불행을 통해 탄생

합니다. 불행을 경험한 사람은 행복의 소중함을 압니다. 작은 행복도 귀히 여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영광스러운 것은 불행을 이겨낸 까닭입니다. 십자가의 불행을 아름다운 옥(玉)으로 만들어내신 까닭입니다. 불행의 십자가를 사랑스런 십자가로 만들어내신 까닭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불행의 십자가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는 놀라운 보석들로 가득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는 부활, 천국, 영생, 사랑, 축복, 화목, 평화, 소망, 그리고 성스러운 행복과 같은 보석이 담겨 있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십자가 속에 담아 두신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십자가 나무는 죽임을 당하는 나무였습니다. 그 나무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생명나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십자가 나무는 저주를 받는 나무였습니다. 그 나무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축복을 받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십자가 나무는 독을 발하는 나무였습니다. 그 나무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향을 발하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십자가 나무는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가는 나무였습니다. 그 나무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가장 좋은 것을 더해 주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십자가 나무는 원수되게 만드는 나무였습니다. 그 나무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화평케 하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까닭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기뻐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죽음을 죽이시고 다시 살아나신 까닭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담임목사 청빙

달라스 베다니 장로 교회는 (1986년 설립) 복음언약 장로 교단 ECO (A Covenant Order of Evangelical Presbyterians) 소속 교회로 복음전파와 다음세대로의 믿음 전승을 사명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힘쓰는 믿음의 공동체 입니다. 이번 담임목사님의 은퇴(25년 시무)로 생명의 말씀과 사랑의 수고로 주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가실 새로운 담임목사님을 청빙 합니다.

청빙 자격 (자격 조건)

- 1. 장로교 및 개혁신학교 M. Div 졸업자.
- 2. ECO 교단 소속 혹은 가입에 문제 없는 분.
- 3. 이중 언어 소통이 가능한 분. (한국어, 영어)
- 4. 미국 체류에 결격 사유가 없는분
- 5. 이민 목회 경력 5년 이상

제출 서류 (구비 서류)

- 1. 교회 소정 양식에 따른 이력서, 목회 계획서 (bethanydallas.org/담임목사청빙공고)
- 2. 학위증 사본 (대학교, 신학 대학원 M. Div. 최종 학력)
- 3. 목사 안수증 사본
- 4. 최근 설교 2편 (mp3 or youtube link)
- 5. 추천서 2부 이상 (추천인이 청빙위원회에 직접 email 혹은 우편 발송)
- 6. 자기 소개서, 사모님 자기 소개서

제출 기간

2020년 4월 30일 까지이며 제출된 서류는 비밀이 보장되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서류 심사후 1차 대상자에게만 연락드립니다.

제출처

담임 목사 청빙 위원회 (bethanypnc2020@gmail.com)
*문의 사항은 e-mail로만 문의해 주세요.

달라스 베다니 장로교회 청빙 위원회

4020 Marchant Blvd, Carrollton TX 75010 Tel.972-395-9200
bethanydallas.org bethanypnc2020@gmail.com

The Cornerstone Community Church in Marina, CA, is looking for a Youth/EM pastor with a pioneering spirit to build a multi-ethnic community. Though the congregation is small in number, it is made up of dedicated adults and adolescents who are passionate about God and the church. CCC was planted with the full support of the Korean First Presbyterian Church (mkfpc.org) to provide Christian witness and service in the area.

1. RESPONSIBILITIES INCLUDE:

- 1. Lead Sunday worship, including preaching, and provide weekly Bible studies
- 2. Oversee administration of the Youth Ministry and Sunday School
- 3. Plan, execute, and evaluate ministry events/programs throughout the year
- 4. Coordinate EM ministry with Korean ministry's vision and goals

2. QUALIFICATIONS:

- 1. Master of Divinity or equivalent from an accredited seminary
- 2. Experience in Youth/English Ministry
- 3. Possess a strong calling to shepherd a young generation
- 4. Fluent in both spoken and written English (Korean is preferred)

3. APPLICATION REQUIREMENTS:

- 1. Resume including photo of self + family (if married)
- 2. Statement of philosophy and theology of ministry (one page)
- 3. Personal testimony: faith journey and the call into ministry (two pages)
- 4. Two sermons
- 5. Two ministry references with contact information

4. Salary & Benefits:

- 1. Salary range is \$45,000-55,000, depending on experience and family circumstances
- 2. Benefits are included with health insurance
- 3. Two weeks of paid time off per year (one week during first year), and one conference for professional development per year

5. Interested applicants should email all application requirements to Rev. K. Rhee (woong101@gmail.com)

솔즈베리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청빙

미국 동부 메릴랜드주 솔즈베리(Salisbury)시에 위치한 솔즈베리 한인장로교회(PCUSA)는 28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섬기실 담임 목사님을 아래와 같이 청빙합니다.

자 격

- 현재 PCUSA 교단 소속 또는 가입이 가능하신 분
- 정규 신학교 이상 졸업하신 분
- 미국 체류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 이중언어(한/영)에 불편이 없으신 분
- 목회경력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신 분 (담임목사, 부목사 경력 포함)

제출서류

- 한글 이력서 1부(사진 포함)
- PCUSA MIF양식(pcususa.org)
- 본인 및 가족 소개서(가족사진 포함)
- 추천서 2부(목사 1명, 장로 1명)
- 최근 6개월 이내 설교 동영상 2편(CD/DVD/USB 또는 동영상 링크 주소)
- 최근 3주간 주보
- 목회비전과 신앙고백서
- 신학교 졸업 증명서
- 목사 안수 증명서

제 출 처

- 제출 마감일: 2020년 4월 18일(토)
- 보내실 곳: 솔즈베리한인장로교회 청빙위원장
Attn: Eld. Nakin Sung (성낙인 장로)
2420 N. Salisbury Blvd. #2, Salisbury, MD 21801

기 타

- 서류는 반드시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비밀을 보장해 드리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 1차 선정 대상자에게는 개별 통지하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 의: 청빙위원장 성낙인 장로
Email: salisbury5183@gmail.com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n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Master Tailor 김병호

CD Printing

CD전문 주님미디어입니다.
교회성경, 부흥회 시디 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량,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1,000장 이상 주문시
신년맞이 이벤트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포함입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그밖의 다양한 콘텐츠 제작

전도용 물티슈, 교회용 물티슈, 주일학교, 영도교회, 메그린&영도교회

문의 323.265.0244 www.junimedia.com

Han's piano tuning

피아노조율

James Han

Sale Used Piano
Professional Tuning
Repair & Moving
godfist91@gmail.com
Tel : 562-822-6778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 입니다.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collisioncenter@gmail.com

84시간 사각행영시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9가 로데오 갤러리 물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 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치과의사 이동희


이동희 원장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 + Menlo Ave. 뉴 서클 호텔 건너편)

“건강 보험료 부담은 확실하게 덜어드리고 혜택은 골고루 받는 아주 괜찮은 헬스케어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뉴저지 주 벌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Altrua HealthShare

프로그램	Complete (컴플릿)	Super(수퍼)	Essential(에센셜)
1인	\$220.00	\$165.00	\$50.00
2인	\$440.00	\$330.00	\$100.00
3인	\$660.00	\$495.00	\$150.00
본인부담금	\$500/year	\$500/year	\$7,500/year
지원금	\$2 Million	\$1 Million	\$150,000
지원내용	의사비, 검사비, 치료비 응급실, 입원, 수술 건강검진(\$1,000)	의사비, 검사비, 치료 응급실, 입원 건강검진(\$500.00)	응급실, 수술, 입원

Altura 는 1995년에 설립된 비영리 선교단체로서 그동안 수만의 회원들의 의료비 지원을 해온 건설한 단체입니다. 이번에 한인지원센터를 설립하여 한국 회원들을 위해 더욱 서비스에 최선을 다할 것 입니다.

한달에 \$165로 최고 1백만불까지 지원, 의사방문, 검진, 검사, 입원, 수술까지 해결!

- 의료비 신청 본인이 하지 않음
- 각 플랜: 응급실 사용 가능
- 한국 병원에서도 혜택
- 비 흡연자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64세까지)
- 장례비 보조
- 그룹 플랜도 가능

*한인지원센터의 상담원들이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한인지원센터

Tel : (714)738-1234 Fax: (714)738-1238
251 E. Imperial Hwy #410 Fullerton, CA 92835
email : info.primeh4@gmail.com

문의: 티나 정(tchong.prime@gmail.com)
그룹문의: 스티븐 정(schong.prime@gmail.com)

*Prime.ahs.family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정보 및 회원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유럽 사회주의와 한국 사회주의의 차이

“한국의 좌파는 반기독교주의자들”

근래 한국 교회에서 반사회주의 목사(신자)들과 친사회주의 목사(신자)들 간의 대립이 심상치 않다. 신자가 정치에 관심을 두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나는 이것을 신자의 의무라고 본다. 그러나 신자가 정치화되는 것은 비극적인 일이다. 신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좀 생각해보아야 한다. 물론 이것이 금지된 것은 아니다. 유럽에는 기독교당들이 있고, 현재 독일은 기민당이 사회당과 연정하여 다스린다. 목사의 정치 참여는 상당히 조심해야 한다.

문제는 정치를 잘 알고 합법적으로 참정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수행하려면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그런데도 현상을 올바로 파악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적은 것 같다. 무엇보다 사회주의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다. 작년 9월에 한국을 방문하여 지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사람이 꽤 많았음에 먼저 놀랐고, 이들이 사회주의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사실에 더욱 놀랐다.

내가 독일에 39년째 살면서 독일의 사회주의를 뾰족 깊이 체험한 사람으로서, 유럽식 사회주의와 한국식 사회주의의 차이점을 밝히고자 한다.

흔히들 유럽 국가들이 사회주의 나라들이라고 말한다. 중국과 북한, 쿠바, 베네수엘라도 사회주의 국가이다. 문 정권은 중국식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사파들은 북한의 사회주의를 원한다.

중국, 북한, 쿠바의 사회주의는 일당독재이다. 항상 공산당이 집권하여 정권이 바뀌지 않는다. 그리고 한 사람이 종신으로 집권한다. 사회주의에서 민주주의로 바꾼 소련도 마찬가지이다. 북한과 쿠바에서는 심지어 정권이 세습한다. 따라서 원래 의도와는 달리 사회주의는 독재 국가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그곳에는 법치주의가 실행되지 않는다. 집권자 마음대로 행할 수 있다.



북한 주민들의 처참한 모습(사진은 글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오픈도어

그러나 유럽 사회주의는 정치 형태가 아니라 주로 분배를 의미한다. 정치 형태는 당연히 법치 민주주의이다. 즉 재산이 되도록 평등하게 분배되는 것을 지향한다. 일당독재와는 전혀 관계없다. 간단히 말해 수입이 많은 사람에게 세금을 많이 부과하고 적은 사람에게는 적게 부과한다. 매우 적은 사람은 세금을 내지 않고 오히려 보조금을 받는다.

그 밖에도 많은 것이 무료이다. 가난한 사람은 의료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모든 의료 혜택을 받는다. 대학도 학비가 없다. 대학생은 심지어 생활비까지 대출받는다. 졸업 후에 직장을 얻으면 대출금의 절반만 갚으면 된다. 나에게 세 자녀가 있는데, 내가 전혀 지원하지 않았음에도 이들은 모두 대학을 졸업하여 직장에 다니고 있다. 이들은 높은 비율의 세금을 내지만 국민 세금으로 공부했으므로 여기에 불만이 없다. 이것이 유럽의 사회주의이다. 그리고 자유가 철저히 보장되며, 독재는 흔적도 찾을 수 없다.

물론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독일의 경우는 이렇다. 분배 외에도 기회균등을 강조한다. 과도한 경쟁이나 대기업의 독식을 막고자 독과점 금지법이 있고, 국유기업도 많이 있다. 예를 들면, 폴크스바겐도 주 정부가 상당히 많은 주식을 가지고 있다. 노동조합도 잘 조직되어 있다. 노동자의 권익이 잘 보장된다.

흥미로운 것은 심지어 극우도 사회주의 체제를 비판하지 않는 점이다. 극우의 많은 당원이 정부 보조금으로 살기 때문일까? 심지어 극우의 대명사인 나찌당도 사회당이다(국가 사회당: National-socialismus). 네오 리버럴의 자민당

(FDP)도 사회주의를 지향한다. 그러므로 유럽형 사회주의는 복지형 사회주의이다. 독재와는 전혀 관계없다. 그럼에도 분배에 더욱 힘쓰는 정당을 좌파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파나 중도라고 한다. 예를 들어 좌파당(Die Linke)에서 빈곤을 완전히 추방하고자 국민에게 모두 한 달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나는 이러한 유럽 사회주의를 선호한다. 한국도 이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자본주의를 싫어하고 유럽식 사회주의를 좋아한다. 미국에 있는 한 끼에 천 달러하는 음식점이 소개되면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산을 분배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그러므로 노무현,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큰 희망을 걸었다.

그런데 조국 사태 때에 한국에 있으면서 사건 전모를 지켜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다. 약 한 달간 한국의 좌파를 연구하면서 지켜보았다. 결국 알아낸 것은 한국 좌파가 추구하는 것은 유럽형 사회주의가 아니라 구 소련형, 쿠바형, 중국형, 북한형의 완전한 독재적 사회주의라는 것이다.

이러한 독재는 일인 독재 치하에 불법과 폭력, 사기, 살인 등이 없이는 이루어지지도 유지되지도 않으며, 실제로 분배가 균등하게 이루어지지도 않는다. 보통은 일부의 특권층 외에는 전부 가난하게 산다. 이것은 동독과 동유럽에서 그대로 보여주었던 것이다. 지배층은 어마어마한 부와 특권을 누린다. 모택동의 위안부대, 김정일과 김정은의 기쁨조도 드러났다. 우리는 결코 이러한

좌파를 지향하지 않아야 한다.

내가 38년 이상을 한국을 떠나 있었기에 그간 한국 사정을 거의 몰랐다. 그러다가 한국에 이러한 종류의 좌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전혀 이해되지 않았다. 그 후에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많은 것을 알아냈고 한국 형편을 이해하게 되었다.

한국에 좌파를 지지하는 사람 중에서 나와 같이 사정을 잘 모르고 순수하게 좌파를 지지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 것 같다. 나는 공산 독재를 원한 것이 아니라, 분배가 어느 정도 정의로워지고, 사회 정의가 서고, 썩어빠진 정치가들이 모두 물러가고, 적폐와 친일 청산, 역사 올바르게 세우기 등이 이루어지려면 좌파가 정권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한국에는 내가 기대하는 그러한 좌파가 없다.

한국의 좌파는 NL 김일성 주체 사상과, PD, 트로츠키파, 21세기파 등과 여러 지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민노당의 불법 행위와 강패 행위, 폭력 사태를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다. 그런데 유럽 좌파는 급진 좌파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점잖다. 폭력 행위는 상상도 못한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횡령 등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다.

유럽 좌파의 이미지는 한국 좌파의 이미지와 완전히 반대된다. 유럽 좌파는 성적으로 문란한 것이 제일 눈에 띄는데, 이것은 사회적 통념으로 허락되는 범위에 있다. 단지 보수적인 내 눈에만 문란하게 보일 뿐이다. 예를 들어 슈뢰더 전 총리(사민당)는 5번째 결혼했고, 녹색정당의 전 당수 피셔는 여자 친구를 계속 바꾸고 결혼만 5번 했다. 이혼을

너무 자주한다. 독일에서 성적 유희, 쾌락주의, 반권위주의 등은 범법이 아니다. 이들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다. 이러한 것 외에는 내 눈에도 거슬리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의 좌파는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들의 행동은 좌파적이지 아니라 20세기 초 중엽의 공산당들의 소행과 같다.

공산당 일당 독재를 추구하는 좌파가 있지만, 신마르크스주의를 추구하는 좌파의 세력이 상당히 크다. 지금 문제인 정권은 신마르크스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눈에 선명히 들어온다. 이들은 사회의 에로스화(무제한 섹스주의), 반권위주의, 무한한 자유, 평등과 다원주의를 정치적으로 실현하려고 한다. 지금 한국에서 아이들, 학생 인권조례를 만들어 아이와 부모를 떼어놓으려고 하는 것은 유럽에서 배운 것이며, 오히려 이보다 훨씬 앞선다. 아동들에게 성행위를 가르치는 것도 이와 같다. 이것이 현재 유럽이 가는 길이며 한국은 훨씬 빨리 질러간다. 이 과정에서 제일 타격을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므로 유럽의 그리스도인은 전적으로 좌파를 경계한다. 그런데 한국의 그리스도인 중에 절반은 네오 마르크스주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문 정권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말로 모순이다. 한국의 좌파는 반기독교주의자들이다. 이들은 사회 정의와는 너무 거리가 멀다. 수구와 중에는 단순한 욕심쟁이와 악질이 많았지만, 좌파들에는 이들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악이 있다.

송다니엘 목사(독일 프랑크푸르트개척교회)



심성통운

SAMSUNG SHIPPING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저희 "삼성통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으로 이사 모든 것을 해결 www.samsungmoving.com

이사의 명가(名家)

- 집안 내에서 손님 입회하에 한국식 포장 서비스
- 포장 재료 무료 제공
- 한국에서 완벽한 가구 set up 과 쓰레기 수거

귀국이사

- 귀국자동차 운송
- 새 물품 구입 시 Sales tax return 혜택
- 무료 창고 보관 2개월 서비스

시내이사

- 한국식 포장 이사 전문 (한국인)
- 피아노, 돌 침대 취급 전문
- 포장 box 대여 및 판매
- 사무실, 공장 이사
- 창고 보관 가능

타주이사

- 무료 창고 보관 1개월 서비스
- 미국 내 전지역 정기 운행
- 샌프란 시스코, 베가스, 피닉스 당일 출발
- 씨애틀, 달라스,아틀란타, 뉴저지 월2~3회 정기 운행

자동차운송

- 미 전지역 모든 승용차 운송 (7~10일 소요)
- 한국 및 동남아 자동차 운송 전문
- 초 저가 차량 운송

해외이사

- 하와이, 괌, 알라스카
- 중국, 일본, 남미
- 캐나다(밴쿠버, 토론토)
-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화물 전문

☎ 1-877-580-2424

SAMSUNG SHIPPING, INC.
samsungmoving@gmail.com

- 주정부 허가: MTR-190586
- US - DOT: 1847208 ICC - MC: 669029
- Fully Insured & Bonded


LA (323) 582-2424

OC (714) 777-7799

☎ (310) 538-3333


LA (323) 582-2424

장재효 목사의 은혜의 샘



교회 일꾼의 섭리적 역할

빌립보서 2:19-30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1. 올바른 신앙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교회는 예수님을 영적으로 올바르게 알아보는 사람들의 신앙고백위에 세워졌습니다. ‘당신이 왜 예수님을 믿는가?’ 그것이 확실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졌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신앙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 두고 회개하고, 성령 받아서 하늘 소망을 목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 신앙고백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마 16:15) 예수님의 이 질문에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마 16:16)했을 때에 예수님이 굉장히 흐뭇해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마 16:17)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사실을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교육이나 지식 전달에 의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시고, 불러내셨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너에게 예수님을 정확하게 근본과 존재와 사명을 알아보게 해 주셨기 때문에, 복이 있는 사람이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교회를 네 위에 세우겠다는 말쯤은 베드로의 시체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는 뜻이 아니라, 너의 영감적 신앙고백의 바탕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의미입니다. 정통한 진리위에 예수님은 자기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고백은 평생을 두고 믿음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고, 그가 내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으며, 그것을 믿어지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냥 두면 지옥에 떨어져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지옥 아닌 천국으로 들어갈 자격을 갖추게 해 주시려고 세워진 천국 정거장이 바로 교회입니다. 정통한 진리위에 예수님은 자기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참 진리의 교회는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위에 세우셨기 때문에 그 교회는 하늘로 통하는 영적문이 열려있게 됩니다. 성령에 의해서 가꾸어진 믿음이 하늘 소망을 향해 결실 했다고 하면은 언제 하나님이 부르시더라도 천국 가서 예수님 품에 안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이 44년 전에 진리정통하고, 성령이 직접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성은교회를 이 땅위에 세우셨고, 오늘에 이르도록 하늘 소망 가꾸기 위하여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2.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디모데

교회에는 여러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는 뜻을 가진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소개됩니다. 그 다음에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문 19절에 보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앞으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 사정이 하나님 입장에서 진실히 파악돼서 빨리 빌립보교회에 혼란을 수습할 수 있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빌립보교회의 내분에 의한 혼란을 진실하게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디모데 외에는 내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길렀습니다. 이 디모데를 길렀기 때문에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이라 했고, “동역자”라고도 했으며, “나와 함께 일꾼 된 자”라고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가서 수습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 다. 사도바울은 빌립보교회의 문제를 수습할 수 있는 사람을 아무리 찾아봐도 디모데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기 주변에 많은 제자도 있고, 신자도 있었지만 디모데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그 때 교회를 이끄는 사람들 중에도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희생의 대속을 통하여 진리를 깨닫고, 회개하며, 거듭나서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천국 가는 알곡들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자가 구령성과를 목적으로 사역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명분과 이익을 계산하면서 무엇인가 챙기려는 목적으로 일한다면 이 사람은 직업인이고 샅꾼이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빌 2:21-22)고 합니다. 사도바울에게는 그 시대에 자기와 함께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쳐 복음의 제물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참 보배로운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엄청난 힘이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 진정한 교회의 일꾼인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일꾼은 영적인 성과, 구령성과를 목적으로 사역해야 하는 것이 교회 일꾼의 본분이고 사명입니다. 내 영혼이 구원을 얻어서 하늘나라 가기를 목적으로 믿음생활 하고 있다면, 내가 교회

에서 주변에 있는 다른 영혼들까지 하늘 나라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살피고, 기도하며, 권면하면서 이끌어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교회에 봉사하는 것이 교회 일꾼의 책무이고 사명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3. 함께 군사 된 에바브로디도

여러 곳에 교회를 세우는 사도 바울의 선교에 계속해서 빌립보교회가 최고로 많은 물질과 기도로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 빌립보교회에 많은 제직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모든 사람들로 부터 신뢰와 존경과 신임을 가장 얻었던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그를 바울에게 보냅니다. 그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중간에 돈을 빼내거나 가지고 도망가지 않고, 반드시 사도 바울에게 전달해서 세계 선교에 요긴히 쓰이도록 할 사람이라는 신용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옥에 속한 사람들은 ‘아, 그 사람 식구는 뭘 먹고 살까? 빨리 집에 가서 돈 벌지 않고...’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돈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고, 아무리 부자라도 너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취하리라 하시면 그 많은 재산 다 놔두고 그날 밤에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생명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에바브로디도는 자기 가족들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일에 집중했습니다. 바울의 지시를 따라 에바브로

디도가 돈을 관리하고 선교를 함으로써,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힘으로 중단되었던 세계 선교가 다시 재개되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한 몸과 같은 존재의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 받는 일인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에바브로디도가 너무 특심하게 일하다가 병이 났습니다.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옥에 갇힌 바울의 입장에서 많은 근심거리가 있었지만, 그 모든 근심 중에 가장 큰 근심은 에바브로디도가 죽으면 안되겠다 하는 근심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자기를 대신해서 세계선교를 열심히 해 왔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는 아주 겸손하게 말없이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된 사람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전혀 돌보지 아니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하여, 세계 선교를 위하여 자기 생애를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의 제물로 희생하기를 최선을 다했습니다.

교회에서 아주 겸손하게 말없이 섬기는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된 사람입니다. 자기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성숙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가 분위기를 장악하려고 하고, 자기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낮추고, 자기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와 함께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나를 통해서 내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오직 주님의 뜻을 받들고 주님을 더 잘 섬기는 목적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 V 한 국 방 송 설 교		한 국 신 문 설 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 V 미 국 방 송 설 교		라 디 오 미 국 방 송 설 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미 국 신 문 설 교		AM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기독일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금요일 오후 2시30분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 은복음선교회



바이러스를 죽이는 마스크가 왔다!

VK마스크 시판

특수 발효소금의 초강력 필터 개발!
마스크는 필터링이 생명!

VK 소금필터의 특징

바하만 청정지역에서 염도가 높은 바닷물을 끌어들여 진흙땀에 1년간 숙성시킨후 4년간 햇빛과 바람으로 만든 자연산 천일염으로 특수코팅!
중금속 0%! 간수0%! 미세플라스틱0%! 85가지 미네랄 천일염!
특수소금필터는 호흡기를 통해 마스크에 습도가 생기면 소금분자들이 분자 분해를 일으켜 호흡기 방향으로 이동하여 보호해준다.
일반 마스크는 습도가 발생하면 박테리아균이 발생되어 장시간 사용할 수 없지만 VK 마스크의 천일염 특수 패드는 멸균과 동시에 입안에 냄새도 제거해 준다.
VKM 소금필터는 특수 코팅되어 3주 이상 사용할 수 있다. (1회 찬물에 1-2분 세척가능)
마스크 필터에는 특수소금이 코팅되어있어 바이러스가 마스크에 접근하면 소금의 결정이 바이러스를 파괴한다.
바이러스가 사멸된 마스크는 균이살지 못하므로 재활용도 가능하다

1개 \$20

1인당 10개 한정
3주 이상 사용가능



특수 천일염 필터 마스크로 자유롭게 안전하게!



VK 마스크 특수필터는 코셔미네랄 천일염 소금연구소 제공.
KoshreMineralSeaSalt.com



100% HANDMADE
MADE IN USA



VKMask.com
Virus Killer Mask
VKMask, Inc.

Space Eum Ca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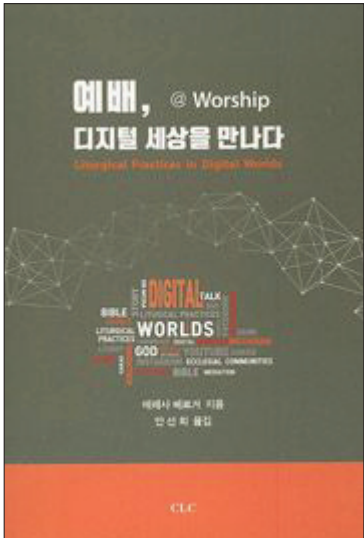
3020 Wilshire Blvd. #100
Los Angeles, CA 90010

213.386.3896
213.605.2772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세요

세계각국 및 지역 대리점 이메일로 접수: info@vkmask.com

‘온라인 예배’ 활성화... 교회 예배의 미래 5가지 전망



테레사 베르거 | 안선희 역
CLC | 328쪽

**예배,
디지털 세상을
만나다**

- 1. 예배의 레퍼토리 확장
- 2. 연속성과 혁신의 문제
- 3. 공간보다 시간이 중요
- 4. 다감각 · 초텍스트 경험
- 5. 휴대 · 이동 가능해지다

“사이버(온라인) 공간이 예배를 위해 ‘유례없이 적절한’ 자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이 기도와 예배를 위한 유례없이 부적절한(inappropriate) 장소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코로나19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당에 가지 못한 채, 목회자 및 성도들과 직접 대면하지 못

하는 ‘온라인 예배’ 또는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리고 이 ‘온라인 예배’가 ‘사이버’라는 말이 주는 어감처럼 가상 또는 허구적인 것이 아니라, 비상적이고 예외적인 상황에서도 예배를 지속할 수 있는 ‘실제적 네트워크’가 될 수 있음을 실감하고 있다.

〈예배, 디지털 세상을 만나다〉는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예배’ 사태를 마치 예견이라도 한 듯, 그 직전인 올해 1월 31일 출간됐다(원제 @Worship: Liturgical Practices in Digital Worlds).

책에서 저자는 ‘사이버 공간’ 즉 온라인으로 ‘이주해 간’ 예배 실행을 탐구하고 있다. 저자는 30여년간 사용했던 자신의 ‘신앙의 보고(寶庫)’인 기도서를 비행기에서 잃어버린 뒤 공허감과 상실감을 크게 느꼈다. 이후 우연히 팟캐스트나 어플리케이션 등 온라인 상의 기도 자료들을 접하면서 도움을 받았고, ‘디지털의 편제’ 현상에 흥미를 갖게 됐다고 한다.

저자는 서문에서부터 “온라인 예배에서 이뤄지는 거룩하신 존재와 인간 존재와의 만남에 있어, 하나님 쪽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않을 것”이라며 “하나님은 디지털(온라인) 공간에서도 오프라인 성소들을 포함해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곳에서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쉽게, 똑같이 어렵게 스스로 움직이시고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분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온라인 공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과 관련된 핵심 문제들은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쪽이 아니라, 이 만남에 참여하는 ‘인간과 물질 쪽’에 달렸다는 말이다.

이러한 입장은 책 전체를 관통하고 있다. 저자는 기본적으로 ‘디지털’을 통한 예배와 성례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기독교 역사가운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매개체’는 늘 존재했고, ‘디지털’도 그 중 하나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인터넷 세례식과 디지털 성찬 나눔을 옹호하진 않는다. 저자는 그런 입장과 거리가 멀다고 스스로 밝힌다.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와 예배 문화가 어떻게 흘러갈지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주목하고 있지만, 북미와 유럽 등 기독교 문화권인 서구에서는 이러한 연구서처럼 이미 관련 논의가 상당히 진행됐다.

주로 가톨릭의 예를 들고 있는 이 책에서는 ‘인터넷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 자체가 틀렸다고 말한다. 그러한 공동체가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라인상에서 어떻게 그리스도께 신실할 것인가?’를 물어야 한다.

‘온라인 예배’도 이미 진행 중이므로, 한국교회 현재와 미래 상황 가운데 주목할 부분은 최근 논의가 시작된 ‘온라인 성례(세례와 성찬)’와 ‘예배의 미래’를 다루는 5·6장이다.

‘온라인 성례’ 문제는 신학적으로 검토해 보면 부정적일 수밖에 없지만, 저자는 군대·전쟁·전염병 등의 이유로 성찬 집례자가 부재하거나 빵·포도주를 전달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목회적·선교적 입장에서 필요성을 제기한다. 세례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는 성례전에 위임된 것이기는 하지만, 성례전으로 환원될 수는 없다. 기독교 전통은 항상 이 점을 이런저런 형식으로 인정해 왔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이버 공간 안에 현존하시며 활동하실 수 있는지 물을 필요가 없다.”

저자는 고대의 언덕 꼭대기들과 그리스 로마의 집들부터 초대교회의 지하 묘지들, 로마네스크 양식

의 대성당들, 개인 예배당들, 순례의 길들, 들판, 가정의 제단들, 그리고 부역의 식탁들 등에 이르기까지 지금의 예배당 이전 역사적 예배 처소들을 열거하면서, 사이버 공간 이전에 있었던 많은 장소들처럼 ‘사이버 공간’ 역시 나름의 예배 실행들을 가능케 하는 동시에 제한하고 있다고 정리한다.

‘예배의 미래’를 논하는 마지막 장에서, ‘온라인 예배’ 전망에 대해 저자는 첫째로 특히 ‘증강 현실’을 통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통합’됨으로써, 예배의 ‘레퍼토리’가 오히려 방대하게 확장될 수 있다고 저자는 평가한다.

둘째로 ‘연속성과 혁신’의 문제에서는 “디지털 미디어의 특성이라고 통상 간주하는 비선형(non-linearity), 다매체성(multi-mediality), 단여와 이미지의 병존, 쌍방향성(interactivity), 텍스트 콜라보(textual collaboration) 등은 디지털 이전 시대 미디어를 형성할 때도 이미 존재했으므로, 온라인 예배와 그 이전 예배 사이의 차이점을 과도하게 강조하지 말 것을 역설한다.

‘공간보다 시간’이 중요해진다는 것이 세 번째 특징이다. 특정 지역과 상관없는 거룩한 장소들이 출현하고, 오프라인 예배당과 가상 현실의 결합으로 ‘직접 참석하는 예배’보다 온라인을 통한 ‘예배의 동시성’이 우위를 점할 것이다. 같은 장소에 있지 않더라도, 같은 시간에 ‘접속’할 경우 예배에 함께 참석하고 있다고 인식되리라는 것이다.

넷째로 단선적(linear) 실행들로부터 그물망 식의 복합적이고(rhizomatic) 다감각적·초텍스트적 경험을 통해, 예배는 계속 변화해 나갈 것이다. 멀티미디어적인 경험을 통해, 즉각적·쌍방향적이며 예배에 더 깊이 몰입할 수 있다.

다섯째로 ‘열린 접근’이 가능해진

다. 휴대 가능하고 이동 가능한 예배, 전 지구적인 기도와 찬송들이 전 세계에서 펼쳐질 수 있다.

책은 활자와 인쇄술 발명 등 오늘날과 비슷한 통신 기술의 결정적 진보를 이뤘던 16세기 아벨라의 성녀 테레사를 돌아보면서 마무리된다. 테레사는 당시 새로운 신앙 갱신 운동인 관상적 기도를 선호했으나, 전통적인 ‘예배기도서’의 중요성도 옹호했다는 것이다.

“테레사의 근본적인 성찰은 이것이다. 교회가 수행하는 예배 실행들의 궁극적 의미는 예배 너머에 있다. 다시 말하자면, 그것이 어디에서 일어나든지 하나님과 신실한 만남 속에 있다는 것이다. 테레사의 시대에서 이런 깨달음이란 권위를 인정받은 특정 의식들의 거행과 은혜를 강력하게 연결지었던 전통 자체를 수정하는 것이었다. 500년이 지난 지금의 디지털 시대에서 테레사의 통찰은 신학적 탐구를 위한 또 다른 길을 열어줄 수도 있을 것이다.”

저자 테레사 베르거 박사(Teresa Berger)는 미국 예일대 신학대학원 예배학 교수이자 성음악연구소(Institute of Sacred Music) 출판 편집인이다. 독일 출신의 저자는 영국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독일에서 예배학과 조직신학을 전공해 각각 신학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듀크대학교를 거쳐 2007년부터 예일대학교에서 예배학을 가르치고 있다. 예배 관련 유명 블로그 ‘Pray Tell’에 정기적으로 ‘예배기도문’을 게재하고 있다.

역자 안선희 교수(이화여대)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개신교 신학부에서 예배학을 전공했다. 예배 지침서 〈예배 돋보기〉와 예배학 이론서 〈예배 이론, 예배 실천〉 등을 썼으며, 〈예배, 사회과학을 만나다〉, 〈예배, 신비를 만나다〉를 번역했다.



방송실에서 온라인 중계를 하고 있는 모습. ©사랑의교회



레오나르도 다 빈치, ‘최후의 만찬’(1495-1498, 벽화). 이 최후의 만찬에서 성찬이 시작되지 2천년이 지났다. ©한길사 제공

APPLY or TRANSFER NOW

AZUSA PACIFIC UNIVERSITY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 · 오렌지 캠퍼스

ONLINE COMING SOON

• 목회학 (MAPS)

• 목회학 석사 (M.Div)

• 목회학 박사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한국어 프로그램

Phone: (626) 857-2200

Email: koreanprogram@apu.edu

www.apu.edu/seminary/korean-program



숫자를 사랑합니다!

**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와 연방 자금의
숫자로 행복이 만들어집니다.**

회계사는 아니지만 이런 이유로,
더해지는 숫자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10년마다, 센서스 인구조사는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집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데이터가 정확할수록, 우리 지역사회가 연방 자금을 지원받을
기회도 많아집니다. 매년 6,750억 달러 이상 규모의 연방 자금이
학교, 보건소, 도로 등과 같은 기반 시설에 사용될 것입니다.

응답은 지역사회 발전의 일환이 됩니다.
우리 모두 응답한다면, 지역사회는 더 풍요로워집니다.

**2020CENSUS.GOV/ko 에서
센서스 인구조사에 응답하세요.**

이 광고는 미국 인구조사국 자금으로 제공됩니다

**우리가
만드는 미래
지금 시작하십시오 >**

United States®
**Census
2020**